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혜련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다문화 제재 학습 활동 연구
-문화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

202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문채윤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다문화 제재 학습 활동 연구
- 문화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 -

김혜련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문채윤

인 준 서

문채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강진호 (서명인) 

심사위원 김명석 (서명인) 

심사위원 김계련 (서명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공동체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존재한다. 그 예로는 학교, 종교 단체, 국가 등이 있다. 공동체는 가상의 공간에서도 형성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SNS 속 세상은 가상 공간을 대표한다. 이처럼 공동체는 다양한 기준과 확장된 범위 속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동체 안에서 공존한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은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문학교육은 공동체와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 내용을 협소하게 담고 있다. 다문화 작품은 여전히 국가 중심의 공동체를 그리고, 국가 중심으로 그려진 인물에게 안타까운 상황을 부여한다. 이러한 양상은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형성하게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은 그 나라의 문화를 편향적으로 바라볼 소지를 준다. 그래서 본 연구는 타 문화에 대한 편향적인 시선의 개선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보고,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간의 관련성을 2015 교육과정의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공동체 역량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교육 내용을 문화 다양성 존중 측면에서 분석하고, 교육 내용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 탐구 학습을 활용한 학습 활동을 문화 다양성 존중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학습 활동으로 제안하였다.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은 5단계이다. 활동의 목적은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개선하는 것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

세를 함양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활동의 1단계와 5단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1단계에서 제안한 활동은 ‘국가 바꿔 읽기’이고, 5단계에서 제안한 활동은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이다. ‘국가 바꿔 읽기’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학습된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의 목적은 학습 활동 1~4단계를 통해 발견한 문화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의 예는 『문학』(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 2019)의 「명량한 밤길」을 통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제재와 관련 활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을 제안한 데에 의미가 있다. 문화 다양성 존중은 공동체 역량과 관련이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 활동이 공동체 역량 함양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취기준과 다원화된 공동체를 고려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 활동을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어] 공동체 역량,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 국가 바꿔 읽기,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 가치 탐구 학습, 2015 국어과 교육과정, 다문화 제재 학습 활동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4
3. 연구 대상 및 방법	19
II. 2015 교육과정과 문화 다양성 존중	21
1. 공동체와 문화 다양성 존중	21
2.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26
1) 총론의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26
2) 국어과의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28
3)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	30
III.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공동체 역량	35
1.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공동체 역량 관련 성 취기준	35
2. ‘문학’ 교과서 안의 공동체 역량 교육 내용 분석	38
1) 작품 분석	38
2) 활동 분석	51

IV.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	63
1. 가치 탐구 학습을 활용한 문화 다양성 존중 활동	64
1) 가치 탐구 학습 활동의 재구성	64
2) 국가 바꿔 읽기 활동	68
3)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70
2.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학습 활동 설계 : 「명랑한 밤길」을 중심으로	72
1) 「명랑한 밤길」과 공동체 역량	73
2) 『문학』 교과서 속 「명랑한 밤길」 관련 활동 분석	84
3) 「명랑한 밤길」의 국가 바꿔 읽기 활동 적용	87
4) 「명랑한 밤길」의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	89
5) 학습 활동의 실제	92
V. 결론	10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국어과 교육과정』 공동체 역량.....	28
<표 2> 국어과, 미술과, 음악과, 사회과, 도덕과 공동체 역량 및 요소 정리.....	32
<표 3>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 과목 ‘문학’ 내용 체계.....	35
<표 4> 공동체 역량 관련 성취기준.....	37
<표 5>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작품 목록.....	38
<표 6> 다문화 관련 제재에서 도출한 학습 활동 분석 기준.....	51
<표 7> 가치 탐구 학습 과정.....	65
<표 8> 사회·역사적 가치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66
<표 9> 가치 탐구 학습 모형 단계 재구성.....	66
<표 10> 「명랑한 밤길」 이해하기, 깊이 알기 활동.....	85
<표 11> 「명랑한 밤길」 펼쳐 보기 활동.....	86
<표 12> 뉴스웨이 , ‘거리두기 끝나자 음식점에 늘어난 ’OO알바‘ 카드 뉴스 일부분.....	91
<표 13> 재구성한 학습 활동.....	92
<표 14> 카드 뉴스 활동물 예시.....	9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다문화 제재를 활용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을 목표로 하는 학습 활동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제재와 학습 활동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는 학습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5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¹⁾이라고 소개한다. 이와 관련된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인 ‘공동체 역량’이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공동체 역량’은 2021년 11월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도 강조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은 ‘주도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²⁾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로 내세우며, ‘공동체 가치 및 역량 강화’³⁾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공동체 역량’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중요하게 함양해야 하는 역량으로 인지되기에 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공동체 역량’의 정의는 공동체를 “지역·국가·세계 공동체”로 표현한다. 이는 2015 교육과정이 공동체의 범위를 폐쇄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의 공동체는 현실을 넘어서 가상 세계에서도 형성된다.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공간에는 공통의 관심사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처럼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

1) 교육부(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2017. 33쪽.

2) 교육부(b), 위의 자료, 2021. 8쪽.

3) 교육부(b), 위의 자료, 2021. 9쪽.

이 다양한 이유로 모이는 다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원화된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적 관점, 즉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문화 다양성 존중은 국적, 성, 종교, 정치적 이념 등을 막론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한다.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의 중요성은 다원화 사회로 흘러감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상승하였지만,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하락하였다. 조사 결과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지만, 다문화 수용성이 성장 과정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⁴⁾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교육은 사회의 요구와 흐름을 교육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다. 문화 다양성 존중을 담을 수 있는 제재는 다문화 제재이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 국어과 선택과목 ‘문학’ 교과서는 문화 다양성 존중을 학습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 교과서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 자료로 이념, 종교, 문화적 속성, 젠더 등의 문제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⁵⁾ 하지만 현재 교과서의 다문화 제재에는 다문화 학습자가 보기에 불편하고 부당한 내용이 있다. 다문화 제재는 국가를 중심으로 인물을 그려낸다. 작품 속 인물들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 잘못된 타자 인식은 학습자가 진정한 인간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지

4)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index.jsp>), (접속 일자 : 2022. 06. 11)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를 조사의 구성요소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최미숙 외,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담은 국어 교육의 이해 - 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61쪽.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타자 이해는 국적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국가로 지칭되는 인물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홍순애(2016)는 다문화 소설의 한계점으로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를 하향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연민과 측은지심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였다.⁶⁾ 특정 국가 출신의 인물과 부정적 상황의 연결은 그 인물이 속한 국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형성할 우려가 있다. 부정적인 국가의 이미지는 타 국가의 사람과 문화를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태도의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2019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 93.1%가 학교에 재학 중이다.⁷⁾ 만약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부모의 나라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작품을 본다면 어떨까.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작품이 그리는 상황에 대해 불편감을 느낄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다문화 제재에 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제재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문화 다양성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재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가 늘 새로운 제재를 가져오는 것도 부담이 클 것이다. 기존 제재를 활용하며 문화 다양성 존중의 교육하는 방법은 학습 활동의 개선이다. 학습 활동의 개선은 기존 제재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교육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학습자가 진정한 타자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형성하여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6) 홍순애, 「다문화사회의 문학적 상상력과 교육방안 연구 : 다문화소설을 중심으로」, 『한중미래연구』 6,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6. 38쪽.

7) 국가통계포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녀의 현재 한국에서의 재학 여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001301412&vw_cd=MT_ZTITLE&list_id=154_11779_40_4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접속일자 : 2022. 05. 26)

다.

2. 선행 연구 검토

선행 연구 검토는 ‘공동체 역량’과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에 관한 연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동체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

(1) 공동체 역량 관련 선행 연구

‘공동체 역량’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이정우(2016), 김혜련(2019), 윤영·성지훈(2021)이 있다. 이정우(2016)는 2015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한 공동체 역량이 다른 핵심역량에 비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동체 역량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공동체 역량의 의미를 고찰하여 2015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이정우(2016)는 총론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공동체 역량의 네 가지 범주를⁸⁾ 기준으로 삼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교육 과정’,

-
- 8) (1)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하위 요소 : 시민의식, 준법정신, 질서의식
(2)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하위 요소 :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의식
(3)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하위 요소 : 협동과 협업 능력
(4)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위 요소 : 나눔과 배려 정신

‘호주 국가수준 교육과정’,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 CoF) 프로젝트’⁹⁾,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수(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ATC21S) 프로젝트에서¹⁰⁾ 정의된 공동체 역량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공동체 역량이 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며, 편견과 고정 관념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지식 함양, 비판적 사고력,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¹¹⁾

윤영·성지훈(2021)은 공동체 역량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 간의 관련성을 증명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공동체 역량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개인, 가정, 학교 차원으로 구분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의 2018년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동체 역량 함양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¹²⁾

김혜련(2019)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혜련(2019)은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이 선택 과목 ‘문학’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과 다르게 공통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는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반영 양상을 탐구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문학’영역의 교육 내용과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의 연

9) 유럽 회의는 47개 국가(유럽연합 28개 국가)로 구성된 인권 기구이다.

10)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평가 방법에 대해 Cisco, Intel, Microsoft사 등 다국적 기업에서 수행한 다년간의 국제 프로젝트이다.

11) 이정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공동체 역량 의미와 하위요소 탐색」, 『시민교육연구』 49(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7.

12) 윤영, 성지훈,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공동체 역량 예측변인의 탐색 :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8(4), 한국청소년학회, 2021.

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가 국어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전반적인 방향과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문학교육에서의 역량 재개념화, 성취기준과의 논리적 관계 설정, 평가 요소의 일관성을 통한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말하였다.¹³⁾

위의 연구들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를 탐색한 것과 ‘공동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 것, 그리고 교육과정 내의 적용 현황을 알게 해준 것에 의의가 있다.

(2) 국어과의 공동체 역량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국어과의 공동체 역량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는 정소영(2016), 최수연(2017), 강보선·신호철(2018), 강보선(2020), 이상일(2021)이 있다. 이 연구들은 고전소설과 관련한 연구, 문법 교육과 관련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고전소설과 관련한 연구로는 정소영(2016), 최수연(2017), 이상일(2021)이 있다. 정소영(2016)은 문학 교육과정이 지적인 활동과 인성적인 활동을 문학 교과 교육과 융합시키는 방안이라 말하며 문학교육의 목표에¹⁴⁾ 도달하기 위해 바람직한 교육 제재 선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고전소설의 내용을 각각의 역량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정소영(2016)은 전계소설과¹⁵⁾ 송사소설이¹⁶⁾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에 적합한 고전소설 제재라 하였다.¹⁷⁾ 교육 활동으로는 소설 속 인물과 사건을 현대적 상황과 비교하는

13) 김혜련,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영역 검토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6, 돈암어문학회, 2019.

14) 정소영(2016)은 2015 개정 문학교육의 목적이 자기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 문화향유자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15) 전계소설은 입진된 인물의 자아가 세계와 대립하는 과정을 작가의 의식에 의해 일정 부분을 허구화되는 과정을 거친 고전소설이다.

16) 송사소설은 재판이 중심소재가 되는 소설이다.

17) 정소영(2016)은 전계소설은 당대를 풍미했던 인물의 행보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작가 의

활동, 찬반토론을 통한 소설 속 상황의 비판적 성찰 및 대안 모색 활동을 제안하였다. 특히, 송사소설로 논쟁점 강조를 위한 모의재판 등의 역할극 활동, 현대를 배경으로 한 패러디 작품 만들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최수연(2017)은 국문 장편소설이 고전소설 내 위상과 비중에 비해 중등학교 과정에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 고전문학 교육을 위해 국문 장편 고전소설의 교육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보은기우록』이 장르적 특성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면서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은기우록』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수연(2017)은 『보은기우록』의 부자간,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지금과 다른 ‘효’의 가치와 주인공의 윤리적 행동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보은기우록』이 공동체에 대한 윤리의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라는 것이다.¹⁹⁾

이상일(2021)은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갈등 해결 방식을 유형화하여²⁰⁾ 국어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이 고전소설의 갈등 해결 방식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개인의 갈등 해결은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나 윤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며, 갈등 해결 방식의 통찰은 학습자 자신의 삶과 현실 세계를 거시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²¹⁾

식으로 구체화되어있어 현대에도 의미가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의 삶의 외연을 넓히고 다양한 인간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 적합하다고 하였다. 송사소설에는 권력자의 횡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있는데, 이는 현대와 다르지 않고, 소설을 통해 올바른 공동체의 정의와 윤리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 정소영(a), 「2015년 개정 문학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고전소설 교육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62, 국어교육학회, 2016.

19) 최수현,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문학교육의 한 방안」, 『語文論集』 71, 중앙어문학회, 2017.

20) 이상일(2021)은 ‘작중 세계의 변화를 통한 갈등 해결’, ‘갈등 주체와 작중 세계 간의 관계 변화로 인한 갈등 해결’, ‘갈등 주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갈등 해결’로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고전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고전소설을 통한 교육이 ‘문제 해결’과 ‘보편적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화 다양성 존중에 관련한 교육 내용은 부족해 보여 아쉬움이 있다.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문법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강보선·신호철(2018), 강보선(2020)이 있다. 강보선·신호철(2018)은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중심으로 문법 평가를 설계하였다. 강보선·신호철(2018)은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의 하위 요소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공동체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하고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범주화하여 평가 요소를 설정하였다.²²⁾

강보선(2020)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이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이라 말하며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의 다양성 존중 능력에 주목하였다. 강보선(2020)은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함양을 위한 문법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언어 다양성 존중’을 중심으로 탐색하며, 문법 교육의 틀을 지식, 기능, 태도 측면으로 나누었다. 지식 측면에서는 언어 변이형과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 권리’에 대한 이해를, 기능 측면에서는 ‘언어 갈등의 문제’, ‘사회적 불이익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태도 측면에서는 언어 다양성의 인정과 일방적 언어 동화 태도의 성찰을 다루었다.²³⁾

위의 연구는 문법 교육을 통해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의 하위 요소를 탐구했다는 것과 다양성 존중 능력에 주목하여 역량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문

21) 이상일, 「고전소설의 갈등 해결 방식과 국어교육적 의의」, 『국어교육연구』 75, 국어교육학회, 2021.

22) 강보선, 신호철, 「국어과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문법 평가 설계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평가를 위한 문법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2), 한국문법교육학회, 2018.

23) 강보선,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함양을 위한 문법교육의 내용 탐색 -‘언어 다양성 존중’을 중심으로-」, 『우리말 글』 84, 우리말글학회, 2020.

법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주류 집단의 일방적 언어 동화 태도를 성찰하는 것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3) 국어과 외 공동체 역량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국어과 외 공동체 역량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이숙정·양정애(2017), 김옥진(2019), 최윤리(2020), 한양화(2020)가 있다.

이숙정·양정애(2017)는 뉴스가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뉴스 리터러시²⁴⁾ 교육이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뉴스 리터러시의 하위 차원이²⁵⁾ 시민성과 관련되는 핵심역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스 리터러시의 하위 차원들 대부분이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 역량보다 공동체 역량에 대한 영향이 더 컸으며, 관련 깊은 하위 차원은 ‘뉴스를 통한 관심사 확장 및 진로 탐색하기’와 ‘비판적 뉴스 이용 능력’이다. 이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공동체 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향을 열어 준 것에 의의가 있다.²⁶⁾

김옥진(2019)은 유니버설 디자인이²⁷⁾ 가지는 인간 중심의 가치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공동체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김옥진(2019)은

24) 이숙정·양정애(2017)은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 미디어 및 공적 뉴스를 규칙적으로 이용하며, 유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 이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뉴스를 개인적 관심사 확대와 공동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뉴스를 책임 있게 공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25) 이숙정·양정애(2017)에서는 뉴스 리터러시의 하위 차원으로 ‘뉴스 접근’, ‘분별적 이용’, ‘뉴스 활용’, ‘뉴스 공유 및 생산 책임 활동’을 설정하였다.

26) 이숙정, 양정애, 「뉴스 리터러시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1(6), 한국방송학회, 2017.

27)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이 공동체 속 자기 역할 이해와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사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에 공동체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 제시’, ‘창의적 문제 해결 기회 제공’, ‘미래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교육하는 효과적인 학습 제제 사용’, ‘공동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실천적 태도 함양’을 제시하였다.²⁸⁾

최윤리(2020)는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이 필수 역량이지만, 지금까지의 세계시민교육은 지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만이 있어서 실천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실천적 요인 강화를 위해서는 공감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며 그 교육 방법으로 뇌교육을²⁹⁾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³⁰⁾

한양화(2020)는 적극적인 참여와 갈등과 협력의 과정이 있는 ‘연극 공동창작 활동’이³¹⁾ ‘공동체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연극 공동창작 활동’이 과정중심,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공동의 문제 해결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연극 공동창작 활동’이 참여자의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8) 김옥진, 「공동체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과 수업구성방안 모색 :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2019(14), 한국 사회과수업학회, 2019.

29) 뇌교육은 인간과 몸이 서로 상호작용함을 전제로, 다양한 신체적 활동과 방법 등을 통하여 뇌의 감각과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방법이다.

뇌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욕구에 갇히지 않고 전체를 위해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홍익익간의 인간상을 양성하는 것이다. 시민교육과 뇌교육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지금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이승헌, 2015, 19쪽.)

30) 최윤리, 「실천 중심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 탐색 : 공감역량과 공동체역량을 중심으로」, 『뇌교육연구』 2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연구소, 2020.

31) 한양화(2020)는 연극 공동 창작활동을 주제 선정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창작의 전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연극을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역할 수행 능력, 갈등 및 문제 해결 능력, 성찰의 과정이 공동체 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위의 연구들은 위와 같은 교육 방법이 공동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다문화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다문화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다문화 제재에 관한 연구, 상호문화교육 연구가 있다.

(1) 다문화 교육 방법 연구

다문화 교육 방법 연구에는 안혜숙(2016), 오정훈(2016), 한명숙(2016), 김명석(2017), 김지혜·서명희(2018), 서영애(2021)가 있다. 안혜숙(2016)은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특징에 맞게 고전소설 ‘홍길동전’으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수업의 대상은 중학교의 일반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이며, 수업의 목표는 문화적 주체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이질적 문화 집단 간의 소통 단절 문제 해결이다. 수업의 요소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으로 문화를 탐구하는 것과 문화의 영역을 넓힌 문학교육이다. 안혜숙(2016)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문화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학생은 고전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소한 문화를 아는 기회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화 영역의 폭을

32) 한양화, 「연극 공동창작 활동이 중학생의 공동체 역량 함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협력중합예술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8(4), 한국예술교육학회, 2020.

넓히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상호 문화 이해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³³⁾

오정훈(2016)은 주류 문화에의 동화가 아닌, 문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다문화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다문화 문학교육에서 소수자의 삶과 문화, 정서를 온전히 반영한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소수자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주류 문화 이해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수자에게 소수자가 주류인 작품을 보게 하는 것이 동등한 입장에서 문화를 인식하고 문화적 상대성을 체험하게 해주어 소수자를 대등한 사회 구성원 및 협력자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에 소수자 문학과 주류 문학의 ‘서사구조 겹쳐 읽기’를 다문화 문학교육의 방법으로 제안하였다.³⁴⁾³⁵⁾

김명석(2017)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방법인 매체를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며 다매체 시대의 다문화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5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성취기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문화 소재의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다매체 자료 활용과 학생 중심의 매체 활용 수업의 확대가 다문화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³⁶⁾

서영애(2021)는 이주민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다문화 시를 활용한 문학 수업을 제안하였다. 서영애(2021)는 ‘다문화적 시민성 고양’과 ‘소수자 목소리 발굴하기’를 수업의 목표로 정하였

33) 안혜숙, 「다문화시대를 위한 문화교육 교수학습 방법 탐구-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고전 소설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 『語文學報』 36,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2016.

34)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취교전>과 한국의 채봉감별곡>를 겹쳐 읽었다. 두 작품은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인물의 유형, 서사구조, 시대상의 반영, 정서, 가치 인식,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동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두 문학, 문화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았다.

35) 오정훈, 「서사구조 겹쳐 읽기를 통한 다문화 문학교육」, 『배달말』 58, 배달말학회, 2016.

36) 김명석, 「다매체 시대의 다문화 교육 연구 - 2011 개정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6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하종오 시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편견적인 시선 지적하기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활동을 제안하였다.³⁷⁾

한명숙(2016)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교육이³⁸⁾ 필요함을 강조한다. 문화교육이 특정 교과에 의해 교육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교과 속에 흩어져 존재하는 속성에 따라 범교과적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현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임을 말하였다.³⁹⁾

김지혜·서명희(2018)는 국어과의 문학적 방법과 도덕과의 윤리적 관점을 융합한 수업을 통해 문화적 소수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학 제재는 전성태의 <이미테이션>이며⁴⁰⁾, 활동은 ‘감상문 쓰기’와 ‘독서 토론’ 활동이다. 토론 활동은 사고의 구체화, 통합적 생각을 하도록 도왔다. 감상문 쓰기 활동은 학습자의 반응과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과 태도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 수업에서 말해주는 시사점은 학습자가 주관화된 관념에 빠지면 있는 그대로를 보기가 어려우므로 작품을 세밀하게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토론이나 글쓰기의 활동이 작품 속 문제를 추상적으로 보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은 교실 내 권력 관계로 온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⁴¹⁾

37) 서영애, 「다문화 시를 통한 문학수업 방안 : 하종오 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4,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1.

38) 논문에서는 문화교육을 ‘다양한 문화 및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가꾸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39) 한명숙, 「국어교육학 : 다문화시대의 범교과적 문화교육 탐구 -문학경험을 통한 문화능력의 함양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40) 김지혜·서명희(2018)는 <이미테이션>이 한국인 부모를 둔 개리가 이국적인 외모로 받는 사회적 시선의 폭력을 고발하는 소설로, 문화적 타자가 경험할 헤기모니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용이 있다고 밝혔다.

41) 김지혜, 서명희, 「다문화적 성찰을 위한 문학과 도덕의 융합교육 - 전성태의 <이미테이션>에 대한 토론 수업의 계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위의 교육 방법을 정리하면, 소수자 문학과 주류 문학의 서사구조 겹쳐 읽기, 다매체의 활용, 편견의 지적과 소수자 목소리 들어주기, 국어과와 도덕과의 융합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편견의 지적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은 활동 이면에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과와 도덕과의 융합 수업은 학습자 개인의 관념대로 글을 읽어 편향된 글 읽기가 진행됨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반면, 소수자 문학과 주류 문학의 서사 구조를 겹쳐 읽는 방법은 타문화를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매체의 활용은 그들의 문화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기 좋은 교육 방법이다. 다만, 소수자 문학과 주류 문학의 서사 구조를 겹쳐 읽는 방법은 비슷함 서사 구조를 갖춘 제재를 찾아야 하기에 교과서에 실린 다문화 제재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2) 다문화 제재 관련 연구

다문화 제재 연구로는 양민정(2015), 최은숙(2015), 정현정(2018), 백순철(2019), 김용기(2021)가 있다. 양민정(2015)은 설화의 구비문학적 성격이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기에 설화 속에 다문화적 성격이 내재해 있음을 밝혔다. 설화 속 남성이 이주민의 역할로 나타나는 경우 적용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정주자의 삶에 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말하며, <단군신화> ‘웅녀’, <주몽신화> ‘유화’, <우렁각시> 민담 세 편을 분석하여 다문화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의의를 밝혀냈다.⁴²⁾

최은숙(2015)은 다문화 교육의 주장이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인정과 상

42) 양민정, 「다문화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 연구」, 『외국문학연구』 5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호 소통'으로 수렴되지만, 상호인정과 소통을 위한 다문화적 요소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최은숙(2015)은 다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라고 말하며, 『삼국유사』 설화의 '공감'의 양상에 주목하여 다문화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삼국유사』 설화를 통해 공감의 필요성, 개인적 공감에서 사회적 공감으로 나아가는 실현 가능성, 반성적 자기 이해와 상호 공존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삼국유사』 설화가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하고 타 문화의 이해 및 존중, 편견 극복을 강조하는 다문화 교육의 제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⁴³⁾

정현정(2018)은 구비문학 속에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문헌보다 뚜렷하다고 보고, '아기 장수' 설화를 통한 다문화 문학교육을 제안하였다. 정현정(2018)은 일본, 베트남, 우리나라의 '아기 장수' 설화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이 집단주의적 폐쇄성과 사회질서 유지의 강조가 두드러짐을 밝혔다. '아기 장수' 설화 속 비주류 문화의 주인공이 현실의 주류 문화에 의해 좌절당하는 이야기를 다문화적으로 해석하였다.⁴⁴⁾ 이에 토론을 통한 모둠활동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서로 다른 설화의 결말이 문화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설화 변이형 만들기를 통해 상호문화적 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김용기(2021)는 우리나라가 자민족 중심 성향이 강하고,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만들려는 단일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수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다양성 인정과 수용을 위

43) 최은숙,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語文學』 128, 한국어문학회, 2015.

44) 정현정(2018)은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이 '아기 장수'와 같다고 보며 '아기 장수'가 첫 번째 죽음 이후 바위 아래에서 시간을 가진 것처럼 이주민에게도 적응의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주민을 향한 배타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존중의 문화와 협동심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45) 정현정, 「'아기장수'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에서의 제안」, 『동악어문학』 76, 동악어문학회, 2018.

해서는 ‘편견’과 ‘차별’의 시각을 바꾸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수용하는 ‘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또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문학, 특히 고소설이 적합한 활용 제재라고 하였다.⁴⁶⁾

백순철(2019)은 다문화적 관점의 제재 선정 논의가 현대 산문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수자와 그들의 문화를 대등하게 인정하는 시선이 다문화 제재의 선정과 내용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백순철(2019)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귀화인 또는 이주민 국가의 고전문학 텍스트와 다문화 사회 내에서 창작한 텍스트를 대안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그 예로 김충선의 <모하당술회述懷>를⁴⁷⁾ 소개하였다.⁴⁸⁾

다문화 제재 관련 연구는 연구자들이 제재 선정에서 상호문화 관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과 고전 문학 작품을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상호문화적 관점 함양을 위한 다문화 교육 제재만을 연구한 논문이므로 제재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각각의 연구에서 선정한 제재는 교과서 밖의 제재로 교육 현장 안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3) 상호문화교육 관련 연구⁴⁹⁾

상호문화교육에 관련한 연구로는 김성진(2015), 김운주(2015), 김지혜(2019), 장현정, 우신영(2019)이 있다. 김성진(2015)은 문학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에 초점이 있음을

46) 김용기, 「문학 교과서 속 고소설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제언」, 『동아시아고대학』 62,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47) <모하당술회述懷>에서는 귀화인으로 살아온 김충선의 생애가 그려져 있다.

48) 백순철,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고전시가 교육 - 김충선의 <모하당술회述懷>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9.

49) 상호문화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문화 다양성 존중에 관련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장의 이름을 ‘상호문화교육 관련 연구’라고 한 것은 살펴본 연구의 키워드가 ‘상호문화’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명칭을 골라 적고자 하였다.

말하며 상호문화주의 구현을 위해 세계 문학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2009 교육과정이 반영된 ‘문학’ 교과서는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작품을 활용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와 방안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김성진(2015)은 이주 노동자의 모습이 학습자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는 부작용이 있어서 상호문화주의를 지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 근·현대 문학과 서구 정전 중심을 탈피하고 제3세계 작품, 동아시아의 문학 작품, 해외 이주 한국인의 작품을 통하여 다른 삶의 배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학과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제안하였다.⁵⁰⁾

김윤주(2015)는 전래동화와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모형을⁵¹⁾ 활용한 다문화 문식성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래동화의 장르와 내용이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김윤주(2015)는 세계 여러 곳에 모티브가 있는 ‘콩쥐팍쥐류’가 적합한 제재라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콩쥐팍쥐>와 중국의 <물고기가지>를 선정하여 예시를 들었다.⁵²⁾

김지혜(2019)는 다문화 소설이 서로 다른 문화성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를 통찰하고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반성하고 상호문화적 협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문화적 갈등 체험, 타자를 억압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이해와 공감, 소설 속 문화적 요소에 대한 자신의 관점 점검(해석), 다문화 소설을 향한 비판적 관점을 통한 상호문화적 태도 함양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해 중심 교육과정 방식을 활용하여

50) 김성진, 「문학교육, 세계를 생각하다 :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51)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은 ‘문화 개념 이해 - 자기 문화 인식 - 타인 문화 발견 - 문화 비교 - 상대화 - 문화 수용’의 단계이다.
 52) 김윤주,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문식성 교육 - 상호문화교육 모형에 기반하여-」, 『漢城語文學』 3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5.

상호문화교육을 설계하였다. 김지혜(2019)는 이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소통의 기회를 제공 받고, 기존의 관념을 반성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 숙고할 것을 기대하였다.⁵³⁾

장현정·우신영(2019)은 다문화 사회 속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에 주목하였다. 이에 제재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와 학습자 반응중심 학습법을 활용한 교육을 제안하였다.⁵⁴⁾ 실제 수업을 진행하여 얻은 결론은 문학 작품을 통한 다문화적 간접 경험이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과 문학 능력이 높아질수록 상호문화적 감수성도 높다는 것이다. 즉, 문학을 통한 간접 경험이 상호 간의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⁵⁵⁾

상호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 교육이 상호문화 관점에서 진행되며, 교육에 사용되는 제재들이 새롭게 제시되거나 혹은 다른 문화권의 제재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의 연구에서 제시한 제재는 교과서 밖의 제재를 새롭게 들여오는 것이므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현장에서 그 제재들이 원활하게 쓰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연구는 ‘문제 해결’과 ‘갈등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이다. 또한, 공동체 역량 교육과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는 모두 고전 문학 작품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교과서 내의 제재보다 교과서 밖의 작품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문학 수업이 고전 문학 작품으로만, 교과서 밖의 제재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문제 해결’과 ‘갈등

53) 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9.

54) 재구성한 학습자 반응중심 학습법은 ‘반응의 형성 - 반응의 공유를 통한 상호문화적 감수성 명료화 - 감상문 쓰기를 통한 반응의 심화’이다.

55) 장현정, 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은 해당 성취기준을 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작품들이므로 학습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다문화 작품들로 '문제 해결'과 '갈등 상황'의 대처 방법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 즉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문학' 교과서 속 다문화 관련 제재와 활동을 살펴보고, 그 제재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국어과의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듣기·말하기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등에서는 공동체 내의 협력과 갈등 조정 방법이 주를 이루고, 다양한 공동체의 존중 및 이해에 관한 내용은 문학 영역과 선택과목 '문학'에서 다루어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문학 영역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선택과목 '문학'은 자아 성찰, 타자 이해, 공동체 문화 발전 등 공동체 내에서 가져야 할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다양성 존중을 학습하는데 적합한 성취기준이 있는 선택과목 '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5 교육과정의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공동체 역량의 설

명이 있는 총론, 본 연구의 중심 교과인 국어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에서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 “[12문학 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⁵⁶⁾, “[12문학 04-02] 문학 활동을 생활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⁵⁷⁾에 해당하는 단원의 다문화 관련 제재와 학습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이때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의 한계점을 찾아 학습 활동 분석 기준을 세운 후,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를 활용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56) 교육부(c),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130쪽.

57) 교육부(c), 위의 자료, 2015. 130쪽.

II. 2015 교육과정과 문화 다양성 존중

1. 공동체와 문화 다양성 존중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⁵⁸⁾, “「사회 일반」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하는 집단”⁵⁹⁾이다. 우리는 사전적 의미에서 공동체의 범위가 ‘특정한 사회적 공간’, ‘공통의 가치’, ‘유사한 정체성’, ‘생활’, ‘행동’,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으로 국가 공동체이고,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배움과 가르침을 행하는 교육 공동체이다. 또,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 집단도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공동체는 현실을 벗어나 가상의 공간에서도 형성된다. 채백 외(2021)는 “미디어 이용 양상의 변화는 새로운 소통 구조를 낳음으로써 새로운 사회관계의 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며 “인터넷 환경이 제공한 사이버 공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망과 사회적 집합체, 즉 ‘가상 공동체’를 등장시켰다.”라고 하였다.⁶⁰⁾ 즉, 가상 공간에서의 교류가 새로운 사회관계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통’을 위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누리 소통망은 하나의 가상 세계이다. SNS로 총칭되는 온라인 공간은 사용자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해시 태그, 실시간 트렌드 등의 플랫폼은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 간의 소

5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동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3%B5%EB%8F%99%EC%B2%B4&ridx=0&tot=1162>), (접속 일자 : 2022. 05. 03).

59) 표준국어대사전, “공동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접속 일자 : 2022.05.03.).

60) 채백 외, 『한국의 공동체와 미디어』, 컬처룩, 2021. 319쪽.

통을 도와준다.

이처럼 오늘날의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던 과거와 다르게 다양한 기준과 공간에서 형성된다.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하였지만, 공동체의 기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박호성(2009)은 “공동체는 단합과 협동 정신, 그리고 집단성 원칙에 뿌리를 두고 구성원의 상호 공존·공생·공영을 지향하는 인간 집단”이라고 말하였다.⁶¹⁾ 공동체가 ‘공(共)’, 즉 ‘같이’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속성은 앞서 살펴본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⁶²⁾

공동체는 ‘같이’의 속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 등이 존재한다.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간다. 다문화 사회는 ‘같이’의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존재하므로 하나의 다원적 공동체이다.

박호성(2009)은 공동체가 “공유(share)를 존중하는 원칙을 미덕으로 여기”기에 “공존과 공생, 구성원 상호 간의 굳은 연대를 높이 기린다.”고⁶³⁾ 하며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로 ‘공유(share)’를 말한다. 즉, 공동체의 ‘같이’의 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며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알프레드 홀츠브레허(Alfred Holzbrecher)는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상황들을 지각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추한 것’ 혹은 ‘매력적인 것’으로, ‘옳은 것’, 혹은 ‘틀린 것’,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고 말한다.⁶⁴⁾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각과 평가의 과정은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는

61) 박호성, 『공동체론』, 효형출판, 2009. 583쪽.

62)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뜻이다.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같이’의 특성을 보여준다.

63) 박호성, 앞의 책, 2009. 578쪽.

다양한 문화나 인종에 대한 평가와 차별로 이어진다.

“차별은 우월감을 만들 목적으로 상이한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차별은 현대사회의 상반된 가치 공존을 어렵게 한다. 종종 차별은 ‘근본주의적 세계상’에 힘입어 타자에게 도발적이고, 동요시키는 특성들을 수반한다. 이러한 종교적 혹은 정치적으로 근거가 있는 차별의 틀은 신뢰받는 질서 구조에 녹아 있으며, 차별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⁶⁵⁾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평가와 차별에 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마르틴 압달라-프릿세이(Martine Abdallah -Pretceille)는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을 축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상호 인정, 움직임,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면서 식별과 표지의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⁶⁾ 또, 장한업(2014)은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 주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들의 편견을 줄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종주의, 차별,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하여, 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교류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한다.⁶⁷⁾ 이로 상호문화적 관점을 지향하는 교육이 타 문화에 대한 평가와 차별에 관한 시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태도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문화적 관점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존중하”⁶⁸⁾ 상호문화적인 관점을 지닌

64) 알프레드 홀츠브레허, 『상호문화 교육의 이해 -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북코리아, 정기섭 외 역, 2014. 15쪽.

65) 알프레드 홀츠브레허, 위의 책, 2014. 26쪽.

66) 마르틴 압달라-프릿세이, 『유럽의 상호문화교육-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장한업 역, 한울 아카데미, 2017. 80쪽.

67) 장한업(a), 『이제는 상호문화 교육이다』, 교육과학사, 2014. 139쪽.

사회에 대해 장한업(2020)은 “상호문화사회 관계 속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중시되기 때문에 우월한 사람도 없고 열등한 사람도 없다.”⁶⁹⁾고 말한다. 그리고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2006)의 내용을 따라 상호문화사회를 만드는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이 “다양한 문화 집단들 간의 이해, 존중, 대화”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⁷⁰⁾ 서로 동등한 관계의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 베르분트(Gilles Verbunt)는 상호문화사회의 장애물이 “문화 집단들 간의 불평등한 역학 관계”이며 “차별과 낙인찍기를 용인하는 사회”에서 상호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¹⁾ 그리고 상호문화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존중, 공존의지와 문화의 역동적 개념”의 문화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⁷²⁾ 그러므로 상호문화적인 관점을 달리 말하면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 다양성 존중’을 상호문화적 관점의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논지에 따라 ‘문화 다양성 존중’보다 ‘상호문화적 관점’의 사용이 용이하면 ‘상호문화적 관점’을 사용할 것이다.

다원화된 공동체 안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갖추는 것은 학습자에게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하지만 문학교육은 여전히 공동체와 문화 다양성을 협소한 의미로 교육 내용에 적용한다. 다문화 작품은 국적, 성, 종교, 정치적 이념 등의 문화 다양성이 있지만, 국적의 다양성만을 다루며, 국가와 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보여준다. 그리고 다문화 작품의 등장인물은 다른 국적의 인물을 타자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썬짜오, 썬짜오」와 「명랑한 밤길」 속 인물들은 한 공간에 있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썬짜오, 썬짜오」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투이’와 한국

68) 장한업(b), 『한국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상호문화교육』. 박영사, 2020. 9쪽.

69) 장한업(b), 위의 책, 2020. 126쪽.

70) 장한업(b), 위의 책, 2020. 125쪽.

71) 질 베르분트,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사회』, 장한업 역, 교육과학사, 2012. 82-83쪽.

72) 질 베르분트, 위의 책, 2012. 93쪽.

에서 온 ‘나’가 독일 학교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명랑한 밤길」에서는 같은 지역에 사는 네팔인 ‘간쭈’와 방글라데시인 ‘짜부딘’을 이질적 존재로 보는 시선이 있다.

국적의 다양성만을 다루는 경향은 또 다른 문제를 자아낸다. 다문화 작품들은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학습 목표로 한 단원에 있다. 그런데 다문화 작품의 내용은 특정 국가의 인물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작품의 경향은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학습하기보다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의 형성을 우려하게 한다. 편견과 고정 관념은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현황과 교육의 실태를 보았을 때, 2015 교육과정이 설명하는 인간상은 의미가 있다.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⁷³⁾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2015 교육과정이 확장된 범위의 공동체와 소통과 존중의 태도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이 공동체 안에서 소통·공유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언급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는 것 중 문화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 교류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는 2015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래 핵심 역량을 소개한다. ‘공동체 역량’은 앞서 소개한 인간상에 해당하는 역량이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은 곧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 그렇다면 공동체 역량이 2015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소개되며, 어떤 교육 내용을 강조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연이어 등장할 2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다.

73) 교육부,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2015. 9쪽.

2.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2015 교육과정 총론, 2015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간의 관계를 2015 교육과정 총론, 2015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총론의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2015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⁷⁴⁾이라고 소개한다. 2015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교육받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이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역 • 국가 •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며 또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에서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⁷⁵⁾

2015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공동체 역량’을 강조한다. 2015 교육과정 총론은 공동체 역량을 “지역 • 국가 • 세계 공동체

74) 교육부(a), 위의 자료, 2017. 39쪽.

75) 교육부(a), 위의 자료, 2017. 39쪽.

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이라고⁷⁶⁾ 정의한다.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민의식, 준법정신, 질서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⁷⁷⁾

위의 내용은 공동체 역량의 해설이다. 공동체 역량은 다양한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협업하는 능력,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2015 교육과정의 공동체 역량은 민주 시민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태도를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며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역량은 해설을 바탕으로 4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⁸⁾ 이때 두 번째 하위 범주에서 공동체 역량이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으로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정우(2017)는 세 번째 하위범주에서 ‘다양성’이 강조되며 네 번째 하위 범주에서 편견, 고정관념 등의 문화적 차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⁷⁹⁾ 이는 ‘공동체

76) 교육부(a), 위의 자료, 2017. 40쪽.

77) 교육부(a), 위의 자료, 2017. 43쪽.

78) (1) 지역, 국가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2)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3)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4)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79) 이정우, 앞의 논문, 2017. 166쪽.

역량'이 '공동체'를 전 지구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문화적 차이를 편견과 고정 관념 없이 받아들이는 존중의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어과의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이 장에서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은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으로 '공동체 역량'을 소개한다.

<표1> 『국어과 교육과정』 공동체 역량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9쪽.)

국어과	공동체 • 대인 관계 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	-------------------	---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다양성 존중'이라 나타냈으며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대인관계능력(상호 협력, 갈등 조정)으로 구체화하였다. 즉,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원만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공동체 역량'을 재개념화하여 선보이고 있다.

『문학』 교과서는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문학』 교과서의 작품 유형은 자아를 성찰하는 작품⁸⁰⁾, 타자를 이해하는 작품⁸¹⁾,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문학 작품⁸²⁾,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작품⁸³⁾,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80) 「흰 바람벽이 있어」, 「다시 느티나무가」

81)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김 씨 표류기」

82) 「정선 아리랑」, 「바퀴벌레는 진화 중」

삶의 의미를 깨닫는 작품⁸⁴⁾, 문학사의 대표적인 작품⁸⁵⁾이다.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품을 제외하면,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작품이 공동체 안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작품들이 자아 성찰, 타자 이해, 삶의 고양, 인간 세계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 형성 등의 학습 목표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자아 확립, 타자 이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유대감 형성, 세계와 삶에 대한 인식 확대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 『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을 통해 간접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과 타자 그리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상호 소통의 삶의 태도를 익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한다.⁸⁶⁾ 그러므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공동체 역량’은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은 직접적으로 문화 다양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는 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 다양성 존중은 미술과, 음악과, 사회과, 도덕과에서도 나타난다.⁸⁷⁾

83)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4) 「성난 풀잎」

85) 「사미인곡」, 「태평천하」, 「공무도하가」, 「찬기파랑가」, 「청산별곡」, 「경설」, 시조 세편, 「어이 못 어던가」, 「홍보전」, 「절명시」, 「주몽 신화」, 「초혼」, 「만세전」, 「백록담」, 「광장」, 「원고지」, 「벼」, 「내 여자의 열매」

86) 내용의 바탕이 되는 『문학』 교과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단원 및 학습 목표, 작품 목록의 전체는 <부록1>에 수록하였다.)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지학사)
-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지학사)
-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미래엔)
- 문학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인다. (미래엔)

『미술』과 『음악』은 보고, 듣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문화 다양성 이해와 존중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문화 수용 태도 등을 설명하며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강조한다.⁸⁸⁾ 2015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서도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가 강조되는 것은 2015 교육과정이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 존중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

이 장에서는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를 2015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미술과, 음악과, 사회과, 도덕과의 공동체 역량의 정의를 바탕으로 추출하고자 한다. 타 교과의 공동체 역량을 살펴보는 이유는 선정한 교과에서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어과가 반영하지

87) 타 교과를 추가로 살펴본 이유는 2015 교육과정과 문화 다양성 존중 간의 긴밀성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문학』 교과서와 같은 ‘지학사’와 ‘미래엔’을 선정하였다.

88) 아래 표에 소개된 학습 목표는 2015 교육과정이 공동체 역량이 문화 다양성 존중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이다.

교과	학습 목표
미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에 다양한 미술 문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지학사) ● 시대와 지역에 따른 미술 문화의 교류와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고, 미술 문화가 지닌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미래엔)
음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국악의 특징을 이해한다. (지학사) ● 서양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각 시대의 음악을 감상한다. (지학사) ● 다양한 문화권별 민요의 특징을 비교하여 발표할 수 있다. (미래엔)
사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지학사) ● 다문화적 변화의 양상과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래엔)
도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지학사) ●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한 이유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미래엔)

않는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역량 내용을 여러 교과에서 살펴보는 것은 공동체 역량의 요소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015 교육과정 총론 해설은 공동체 역량을 다양한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협업하는 능력,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이정우(2017)는 ‘공동체 역량’을 네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정우(2017)가 정리한 네 가지의 범주를 연구자는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고자 한다. (1)과 (4)는 공동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관련되고, (2)와 (3)은 공동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관련된다. 그래서 두 가지 범주는 (1)과 (4)를 묶은 것과 (2)와 (3)을 묶은 것이다.

- (1)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 (2)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 (3)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 (4)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⁸⁹⁾

(4)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1)에서 말하는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3)의 협업 및 상호작용 능력과 (2)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공존하는 능력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의 범주는 (1)과 (4)를 묶은 ‘1.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와 (2)

89) 이정우, 앞의 논문, 2017. 151쪽.

와 (3)을 묶은 '2,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표2> 국어과, 미술과, 음악과, 사회과, 도덕과 공동체 역량 및 요소 정리

	연구자가 정리한 정의	교육과정 문서 속 정의 ⁹⁰⁾	요소
국어과	연구자가 정리한 정의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	교육과정 문서 속 정의 ⁹⁰⁾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요소 자아 이해, 타자 이해, 세계 이해, 다양성 이해, 상호 존중 및 유대감,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바람직한 관계 맺기, 상호 협력하기, 갈등 조정하기)
미술과	다양한 미술 문화를 통해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미술 문화 이해, 다양한 미술 문화 이해, 다원적 가치 이해, 존중의 태도, 공동체 발전의 참여
음악과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음악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	우리 음악 전통 이해, 세계 다양한 문화 이해, 다양한 가치와 문화 수용, 공동체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태도
사회	현재와 변화하는 사회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표	효과적인 상호작용 능력,

회 과	문제 속에서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도 덕 과	세계적인 공동체 구성 원으로서 소속감과 윤 리적 태도를 갖추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공동체 의 식.	도덕 규범과 정서 및 유대 감을 근간으로 자신이 속 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공 동체 의식.	공동체 내의 소속감 형성, 윤리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사회 문제 해결

<표2>는 연구자가 정리한 공동체 역량⁹¹⁾의 정의,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공동체 역량의 정의, 그리고 각각의 정의에서 추출한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출한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이다. 국어과의 ‘자아 이해’, ‘유대감’, 미술과의 ‘우리 미술 문화의 이해’, 음악과의 ‘우리 음악 전통 이해’, 도덕과의 ‘공동체 내의 소속감 형성’은 ‘공동체 역량’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어과의 ‘타자 이해’, ‘세계 이해’, 미술과의 ‘다양한 미술 문화 이해, 다원적 가치 이해’, 음악과의 ‘세계 다양한 문화 이해’, ‘다양한 가치와 문화 수용’은 ‘공동체 역량’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가 중요함을 드러낸

90) 교육부(a), 앞의 자료, 2015. 9쪽.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2015. 9쪽.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2015. 9쪽.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2015. 9쪽.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2015. 9쪽.

91) 연구자가 정리한 공동체 역량의 정의는 각 교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본 후 내린 정의이다.

다. 다양성의 이해 이면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국어과의 ‘상호 존중’, 미술과의 ‘존중의 태도’는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에 속한다.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국어과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 ‘상호 협력하기’, ‘갈등 조정하기’,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 음악과의 ‘공동체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사회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도덕과의 ‘윤리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각 교과와 특성에 맞게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역량’에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Ⅲ.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공동체 역량

‘Ⅱ. 2015 교육과정과 문화 다양성 존중’에서는 2015 교육과정의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를⁹²⁾ 추출하였다. Ⅲ장에서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성취기준을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 단원의 교육 내용을 문화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공동체 역량 관련 성취기준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내용 체계는 <표3>과 같다.

<표3>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 내용 체계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124쪽.)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문학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예술 진·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로서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과 세계의 이해 삶의 의미 성찰 정서적·미적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선택하기 맥락 이해하기 몰입하기 보조·참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능력 문학문화 작가와 독자 작품의 내재적·외재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활동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수용·생산하며 문학문화를 향유하는 행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의 맥락 문학과 인접 분야 작품의 수용과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활용하기 이해·해석하기 감상·비평하기 성찰·향유하기 모방·개작·변용하기 창작하기

92) 공동체 역량의 하위요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문학과 매체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 • 문학사와 역사적 갈래 • 문학과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은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민족 문화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과 범위 • 전통과 특질 •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 • 문학과 시대 상황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 한국 문학의 발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소통하기 • 점검·조정하기
문학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성찰 • 타자의 이해와 소통 • 문학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을 통해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할 때 문학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아 성찰, 타자 이해</u> • <u>공동체의 문화 발전</u> 	

연구자가 정의한 국어과의 공동체 역량은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이다. 또, 추출한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내용 요소는 공동체 역량의 정의와 하위 요소를 바탕으로 찾을 수 있다. <표3>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 요소는 ‘문학의 본질’ 영역의 ‘인간과 세계의 이해’, ‘문학의 대한 태도’ 영역의 ‘자아 성찰 타자 이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이다.

세 가지 내용 요소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표4>와 같다.

<표4> 공동체 역량 관련 성취기준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124쪽, 130쪽.)

성취기준	내용
[12문학 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문학 04-01]	문학을 통하여 <u>자아를 성찰</u> 하고 <u>타자를 이해</u> 하며 <u>상호 소통</u> 하는 태도를 지닌다.
[12문학 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u>공동체의 문화 발전</u> 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12문학 01-01]은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이고, [12문학 04-01]과 [12문학 04-02]는 ‘문학에 관한 태도’ 영역의 성취기준이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은 [12문학 01-01]을 “문학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인식하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⁹³⁾라고 설명한다. 이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문화 다양성 존중에 초점이 있기보다 문학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12문학 04-01]과 [12문학 04-02]은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⁹⁴⁾한 성취기준이다. 문학を通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문화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는 문화 다양성 존중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과 연관된 성취기준은 [12문학 01-01]를 제외한 [12문학 04-01]과 [12문학 04-02]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12문학 04-01]과 [12문학 04-02]을 반영한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3) 교육부(c), 위의 자료, 2015. 124쪽.

94) 교육부(c), 위의 자료, 2015. 130쪽.

2. ‘문학’ 교과서 안의 공동체 역량 교육 내용 분석

본 연구는 [12문학 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⁹⁵⁾, [12문학 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⁹⁶⁾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총 9종의 문학 교과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교과서는 ‘금성출판사(류수열 외, 2019)’, ‘미래엔(방민호 외, 2019)’, ‘해냄에듀(조정래 외, 2019)’, ‘좋은책신사고(이승원 외, 2019)’, ‘창비(최원식 외, 2020)’, ‘동아출판(김창원 외, 2019)’, ‘지학사(정재찬 외, 2021)’, ‘천재 교과서(김동환 외, 2019)’, ‘천재 교육(정호웅 외, 2019)’의 『문학』이다.

1) 작품 분석

‘문화 다양성 존중’과 관련된 작품은 다문화 작품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작품 분석을 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문화 제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9종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작품은 <표5>와 같다.

<표5>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작품 목록

	문학 교과서	작품
1	금성 출판사	최은영, 「썩짜오, 썩짜오」 말랄라 유사프자이, 크리스타 램, 「나는 말랄라」
2	미래엔	활동 제재 - 김신향, 「붉은 꽃, 흰 꽃」
3	해냄 에듀	신영복,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4	좋은책 신사고	공선옥, 「명랑한 밤길」
5	창비	작품 더 읽기 - 한명희,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95) 교육부(c), 위의 자료, 2015. 130쪽.

96) 교육부(c), 위의 자료, 2015. 130쪽.

한국어 초급반1		
6	동아 출판	.
7	지학사	활동 제재 - 공선옥, 「명량한 밤길」
8	천재 교과서	안호경 각본, 황조윤 각색, 김성훈 감독, 「마이 리틀 히어로」
9	천재 교육	.

다문화 관련 제재는 ‘천재 교육(정호웅 외, 2019)’과 ‘동아출판(김창원 외, 2019)’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있다. 작품은 총 7개로 「썬짜오, 썬짜오」, 「나는 말팔라」, 「붉은 꽃, 흰 꽃」,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 「마이 리틀 히어로」, 「명량한 밤길」이다. 7개의 작품은 공동체 역량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지니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다문화 작품이 국가 또는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작품 분석에서는 문화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다문화 제재가 갖는 한계점을 중심으로 작품 분석을 하고자 한다.

「붉은 꽃, 흰 꽃」은 베트남에서 태어난 ‘프엉’이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온 지 이태가 되어서야
자기 이름을 겨우 쓸 수 있는 프엉 씨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호찌민, 버스, 여덟 시간, 까마우, 더위

공부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읽을 수 있는 단어는 열 개 남짓
하지만 모르는 게 없는 생선 이름들

오늘은 수술한 남편 대신 혼자서
생선 장사를 거뜰히 해냈다고

손을 씻어도 비린내는 희미하게 퍼지고
프엉 씨는 발개진 얼굴로 또 미안해 한다

가만있자, 프엉은
하노이의 오월을 붉게 물들이는 꽃 이름이 아닌가

종일 고단했는지 붉은 꽃이 깜박

때마침 함박눈이 내려서
딸 이름 설화가 바로 저 눈꽃이라고 일러준다.

방 안에 붉은 꽃, 흰 꽃
두 송이 시들지 않는 꽃이 활짝(김선향, 「붉은 꽃, 흰 꽃」)⁹⁷⁾

베트남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국제 결혼을 한 이민 여성, 한국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한국말이 서툰 베트남 여성, 수술한 남편 대신 혼자 생선 장사를 거뜰히 해내는 베트남 여성. 시는 ‘프엉 씨’를 위와 같이 표현한다. 시인은 ‘프엉 씨’와 그녀의 딸을 꽃으로 비유한다. 열심히 인생을 사는 ‘프엉 씨’를 꽃으로 비유하는 것은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엉 씨’가 베트남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더 아름답게 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후자의 시선으로 시를 본다면, 학습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민해 온 여성은 연민의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학습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

97)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9. 314쪽.

다.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은 외국인 노동자 부부의 한국어 수업 시간을 묘사한 시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
한국어 시간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세계 지도를 알겠다
미국 사람들 주변으로는 캐나다가 모이고
네팔은 인도와 짝이다
소란스럽고 질문이 많은 건
미국이나 호주고
베트남이나 라오스는 아무래도 말수가 적다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는
네팔 여자의 남편이다
집사람,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도 유창한 네팔 사람이다
일주일에 두 번
한국어 공부 끝나서 세 시간
그들의 유일한 데이트 시간이다
남편은 한국에서 아내는 네팔에서
그렇게 삼 년
남편은 불광동에서 아내는 영등포에서
또 그렇게 삼 년
일주일에 두 번
한국어 공부 끝나고 세 시간
네팔 말이 한국말보다 아름다운 시간이다.(한명희,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98)

98) 최원식 외, 『문학』, 창비, 2020. 304쪽.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은 사람의 이름 대신 국가 명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을 표현한다. 그리고 네팔 부부의 이야기와 함께 시인의 시선을 2연에서 그린다. 남편은 아내보다 3년 먼저 한국에 들어왔다. 3년을 떨어져 지낸 부부는 아내가 한국에 오면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것이 무색하게 남편과 아내는 떨어져 지낸다. 이들은 아내의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3시간 동안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인은 그 시간을 “네팔 말이 한국말보다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부부의 모습을 아름답게 본다. 하지만, 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시인의 시선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은 한국어 교실을 표현할 때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를 묶고 네팔과 인도를, 그리고 라오스와 베트남을 묶었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이 한 공간에서 무리 지을 때는 비슷한 문화적 배경, 이웃 나라, 익숙한 나라라는 기준이 작용할 것이다. 위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를 묶고, 네팔과 이웃한 나라인 인도를 묶고, 베트남과 라오스를 묶는 것은 문화적 배경, 인근 나라 등의 기준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란스럽고 질문이 많은 건 / 미국과 호주고 / 베트남이나 라오스는 아무래도 말수가 적다”라는 부분은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힘의 수준도 이들이 모인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간의 힘의 차이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시선에 반영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시선의 의미는 2연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3년 동안 네팔 부부가 떨어져 지낸 이유는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년 동안 떨어져 지낸 네팔 부부, 아내가 한국으로 왔지만 함께 지낼 수 없는 부부의 상황은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다. 부유하지 못한 나라와

네팔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며, 이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의 주제는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간 힘의 논리에 따른 관계에 대한 비판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연민”⁹⁹⁾이다. 작가는 시를 통해 국제 사회 속 힘에 따른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와 이주 노동자의 상황을 하나의 시선 안에서 보는 것은 비판보다는 연민의 시선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 리틀 히어로」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뮤지컬 오디션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 시나리오이다. ‘일한’은 학력을 거짓으로 꾸미고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활동한다. 잘 나가던 시절도 잠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일한’은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꿈꾼다. 그러던 중 다문화 가정 아이인 ‘영광’을 만난다. 처음에는 ‘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지만, ‘영광’에게 아빠를 찾고 싶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자 ‘영광’의 도전에 함께한다. ‘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결승 진출이 어렵게 되자, ‘일한’은 자신의 학력 위조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은 가짜이지만 ‘영광’은 오디션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영광’의 결승 출전을 위해 힘쓴다. ‘일한’의 노력 덕에 ‘영광’은 결승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최종 우승을 한다.

「마이 리틀 히어로」가 ‘천재 교과서’ 『문학』에 실린 부분은 ‘영광’이 다문화 아이라는 이유로 오디션 결승 출전이 어려워지자 ‘영광’을 위해 자신의 거짓 학력을 밝히는 ‘일한’의 장면부터 ‘영광’이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하는 과정까지이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이기고 좋은 결과를 얻는 이야기인 이 시나리오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갖는 우리의 편견을 비판

99) 고창균 외, 『해법 문학 현대 시』, 천재교육, 2019. 366쪽.

한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일한 :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도 많고,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재도 크면 나라 지키러 군대 갈 거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낼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하게 해야죠.

구 상무 : (이를 갈며)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일한 : 네, 근데, 저 아이는요?

구 상무 : 영광이? 절대 못 올라가지

일한 : 그럼, 제가 기자들 있는데 가서 김영광 결승전 못 올라가게 하려고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 다 얘기해도 되는거죠? (황조운 각색, 김성훈 감독, 「마이 리틀 히어로」)¹⁰⁰⁾

(나) 일한을 돌아보다 고개를 돌리는 영광, 여전히 홀로 서 있다.

일한이 무대로 걸어 나가서 영광 앞에 한쪽 무릎을 굽혀 앉는다.

일한 : 왜? 전부 네 노래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영광 : 전 얼굴도 까맣고…… 그런데 정조 대왕님은 얼굴도 하얗고…… 난 아빠도 없고…… 아빠는 날 창피해하는데…… (설움이 복받쳐 더듬거리며)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황조운 각색, 김성훈 감독, 「마이 리틀 히어로」)¹⁰¹⁾

(가)는 ‘영광’의 결승 출전이 어렵게 되자 ‘일한’이 ‘구 상무’를 설득하는 장면이다. ‘일한’은 자신의 거짓 학력을 밝히며 ‘영광’의 결승 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정적이다. ‘구 상무’는 ‘영광’의 결승 출전을 막기 위하여 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100)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42쪽.

101) 김동환 외, 위의 책, 2019. 44쪽.

(나)는 결승 출전의 기회를 되찾지만, ‘영광’이 쉽게 노래하지 못하는 장면이다. ‘영광’의 대사는 지금까지 ‘영광’이 받아왔던 차별과 편견을 보여준다. “전 얼굴도 까맣고…… 그런데 정조 대왕님은 얼굴도 하얗고……”,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영광은 다른 피부색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한국 국적인 한국 아이지만 이전에 경험한 편견과 차별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지적해주는 좋은 작품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실을 작품을 통해 확인하는 점은 편견과 차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특정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편견과 차별의 장면으로 인해 고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명랑한 밤길」은 사랑에 실패한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연결 지은 소설이다.¹⁰²⁾ 주인공 ‘나’는 스물한 살 여자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여 그렇지 못한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나’는 도시에서 온 남자와 친해지며 그와의 사랑을 꿈꾼다. ‘나’는 답답한 현실에서의 해방감을 느낀다. 하지만 남자는 ‘나’의 친구 ‘수아’와 사귀는 낯새를 보인다. ‘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남자를 찾아간다.

집에 찾아가지만, 남자의 태도는 냉담하다. 남자는 애써 가져온 무공해 채소를 거절하고, 신문물을 알지 못하는 ‘나’를 조롱하고 무시한다. ‘나’는 상처를 받은 채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던 중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두 남자를 본다. ‘나’는 두려움을 느껴 정미소로 몸을 숨기고, 그 과정에서 채소 봉지를 놓친다. 두 남자가 채소 봉지를 발견하고 대화를 나눈다. 처음에는 채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내 임금을 착취당한 일,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

102)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308쪽.

경험, 어려운 결혼 생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야기한다.¹⁰³⁾ ‘나’는 두 남자와 동질감을 느끼고, 두 남자가 명랑하게 사라진 것처럼 비를 맞으며 명랑하게 걸어간다.

(가)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봐……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로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입을 달싹여 남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바보인가 봐 한마디 못 하는 잘 지내나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 봐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공선옥, 「명랑한 밤길」)

104)

(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 가고 지나가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 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공선옥, 「명랑한 밤길」) 105)

두 남자는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 온 ‘간주’와 ‘짜부딘’이다. 이들은 서툰 한국말로 대화를 하며 자신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른다. ‘나’는 두 남자가 부르는 노래를 어둠 속에서 따라 부른다. (가)의 상황은 노래의 가사가 망금 사랑에 실패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해서 따라 부른 것이다, 반면 (나)는 가사에 대한 공감과 함께, ‘간주’와 ‘짜부딘’에게 동질감을 느껴서 따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순탄하지 못한 생활과 고난을 겪었지만 명랑하게 나아가야 하는 ‘간주’와 ‘짜부딘’ 그리고 ‘나’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03) 사장에게 돈을 받지 못한 이야기, 한국 사람과 결혼한 여동생이 가정 폭력을 당한 이야기, 결혼한 한국 여자가 도망간 이야기, 일 하다가 다친 이야기 등을 나눈다.

104) 이승원 외, 위의 책, 2019. 310쪽.

105) 이승원 외, 위의 책, 2019. 311쪽.

이 작품은 힘든 상황에서 명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또, 인종을 구분하지 않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공감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처를 입은 여자와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유대감 형성은 여자가 겪은 안타까운 상황과 결부되어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연민의 시선을 부각할 우려가 있다. 이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닌, 소설에 등장한 나라에 대한 감정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썩짜오, 썩짜오」는 베트남 전쟁으로 상처 입은 베트남 가정과 한국 가정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소설이다. 어린 화자인 ‘나’는 아빠의 직장으로 인해 독일 플라우엔에서 산다. ‘나’의 가족은 베트남에서 온 ‘호 아저씨’ 가족을 만난다. 타지에서 만난 두 이민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친분을 쌓는다. 두 가족은 ‘투이’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식사 도중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나’는 아는 내용이 나오자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¹⁰⁶⁾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빠와 엄마는 ‘나’의 말을 제지하고 ‘호 아저씨’는 말을 돌리기 시작한다. ‘나’는 모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한 마디를 더 한다. “정말이에요. 우리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¹⁰⁷⁾ 그 후 ‘투이’가 “한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어...그들이 엄마 가족 모두를 다 죽었다고 했어. 할머니도, 아기였던 이모까지도 그냥 다 죽었다고 했어. 엄마 고향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대”¹⁰⁸⁾라고 말한다.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인 ‘응웬 아줌마’는 ‘나’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나를 위로한다. ‘나’의 엄마는 몰랐던 일이라며 ‘응웬 아줌마’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아빠는 자신의 형이 베트남 전쟁에 나가 죽었다고 말하며 사과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때부터 베트남 전쟁으로

106) 류수열 외(a), 『문학』, 금성, 2019. 300쪽.

107)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300쪽.

108)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300-301쪽.

상처를 입은 ‘응웬 아줌마’와 아빠 사이에서 무거운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두 가족의 관계 회복은 어려워진다. 나중에 ‘나’의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간다. 엄마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쓸쓸히 죽는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서른 셋인 ‘나’는 플라우엔으로 응웬 아줌마를 찾아가서 인사를 나눈다.

이 작품은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상황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소설의 줄거리는 작품의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필자는 「썩짜오, 썩짜오」의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베트남에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모두 다 죽었대요. 군인들이 와서 그냥 죽었대요. 아이들도 다 죽었다고 마을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투이가 말했다.

“그래, 투이 말이 맞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 너희는 들어 본 적 없을 거야. 투이가 더 얘기해 볼래?” 선생님은 투이가 자기 의견을 말했다는 것에 만족해했지만, 그에는 반사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였다. 투이의 얼굴이 곧 울 것처럼 붉어졌기 때문이다. 그 애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중략)...

그때 반장 잉가가 손을 들었다. “베트남은 전쟁으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예요. 미군만 육만 명이 죽었고 군인 아닌 베트남 사람들도 이백만 명 죽었대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미군이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무를 죽이는 약도 뿌렸고요.” 반장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빨갛게 달아오른 투이의 작은 귀를 바라봤다.

선생님은 반장의 말이 정확하다고 칭찬하고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배경과 전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일이 미국 정부의 실책이었고, 미국으로서는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한 전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최은영, 「썩짜오, 썩짜오」)109)

2차 세계 대전을 배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2차 대전 이후로 대규모

살상이 없었다고 말하자, ‘투이’는 베트남 전쟁을 말한다. ‘선생님’이 ‘투이’의 대답에 반문을 하자, ‘투이’는 이내 얼굴이 붉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면, 반장 ‘잉가’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사실을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선생님’과 반장 ‘잉가’는 전쟁 피해국 출신인 ‘투이’를 배려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과 ‘잉가’는 독일인이고 ‘투이’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점은 ‘선생님’과 ‘잉가’, 그리고 ‘투이’의 생각 속에 국가 간의 힘의 권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게 한다. 힘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 문화 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은 국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자가 깨닫게 해야 한다.

「나는 말랄라」는 여성과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한 파키스탄의 소녀인 말랄라의 삶을 다룬 수필이다. 이 수필은 여자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테러리스트의 잔혹함을 폭로한다.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투쟁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 작품을 통해 학습자는 파키스탄의 문제, 문화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나라의 부정적인 사건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저들의 상황을 보고 생겨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저와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음에 대한 안도감이 그 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한 나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그 나라의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겐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는 작가가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하며 느낀 점을 기록한 수필이다. 작가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운 이스탄불이 자신의 의식 속에서는 훨씬 멀리 있었다고 말

109)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299-300쪽.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문화 종속성으로 인해 세워진 역사에 의한 벽, 즉 이중 장벽 때문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을 비잔틴 문명의 절정이라 예찬한다. 그리고 유럽의 유적을 예찬하고 서구적 사관을 배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지적한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 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습니다.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 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신영복,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겐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¹¹⁰⁾

작가는 우리도 모르게 쌓아 놓은 장벽인 자기 중심적 가치관, 고정 관념, 편견 등을 깨부수고 관용의 자세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겐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터키 이스탄불 문화를 접하게 하며, 타 문화를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제재로 적합해 보인다.

9종의 교과서 중 다문화 제재가 있는 7종의 『문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겐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를 제외

110) 조정래 외, 『문학』, 해냄에듀, 2019. 305쪽.

한 작품들이 국가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타자를 이해하는 학습 목표를 위한 제재들이지만, 타자를 국가 기준으로 나누어 보게 하는 교과서의 수록 양상이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다문화 제재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며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습 활동을 통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2) 활동 분석

다문화 제재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학습 활동 분석의 기준은 두 가지이다.

<표6> 다문화 관련 제재에서 도출한 학습 활동 분석 기준

학습 활동 분석 기준	
1	잠재적으로 형성되는 국가에 대한 편견을 깨 줄 수 있는가?
2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첫 번째 분석 기준은 다문화 관련 제재가 국가와 문화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감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분석 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이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이기에 교육의 연장선으로 설정하였다.

학습 활동 분석은 「붉은 꽃, 흰 꽃」,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 「마이 리틀 히어로」, 「명랑한 밤길」, 「썩썩오, 썩썩오」, 「나는 말랄라」,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의 순서로 진행하겠다.

「붉은 꽃, 흰 꽃」(미래엔, 『문학』)은 단원의 대표 작품이 아니다. 대신 '5-(2) 문학과 공동체' 단원에서 「바퀴벌레는 진화 중」의 학습 활동에 제

시되어있다. 학습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작품을 읽고, 공동체 문화 발전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마지막 연에 유의하여 시적 화자가 ‘프영 씨’와 그녀의 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 해 보자.

(2) 이 작품을 읽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느낀 점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자.¹¹¹⁾

「바퀴벌레는 진화 중」은 인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룬다. 이 작품은 문학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작품 아래에 있는 「붉은 꽃, 흰 꽃」의 활동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교과서의 저자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보고 학습 활동에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프영 씨’와 그녀의 딸을 ‘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찾는 활동과 “작품을 읽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이 느낀 점”¹¹²⁾을 말하는 활동은 타지에서 온 이주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하지만 이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이 시선은 ‘프영 씨’가 온 국가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어 그들의 문화와 자국의 문화 간의 수준을 나눌 수 있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붉은 꽃, 흰 꽃」의 학습 활동은 문화 다양성을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학습하는 편견을 방지하지 못한다.

「힘내라, 네팔 - 외국인 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창비, 『문학』)은 ‘4-(2) 문학의 생활화’ 단원의 ‘작품 더 읽기’에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작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 없다. 학습 활동 대신 작품의 감상 방향과

111) 방민호 외, 앞의 책, 2019. 314쪽.

112) 방민호 외, 위의 책, 2019. 314쪽.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

- 작품의 감상 방향

다음 작품은 외국인 노동자 부부의 한국어 수업 시간을 묘사한 시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¹¹³⁾

- 질문 배달

-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나라 이름으로 표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 작품에 그려진 네팔인 부부의 처지를 보았을 때 제목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¹¹⁴⁾

작품의 감상 방향은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제시되었다고 말한다. ‘질문 배달’에 있는 두 질문은 작품의 표현 방식과 제목의 의미를 알기 위한 질문으로 바른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학습하는 편견을 방지하는 활동은 작품의 감상 방향과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

「마이 리틀 히어로」(천재 교과서, 『문학』)는 ‘1-(3) 문학의 생활화’에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목표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2.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1) 일한과 영광이 공동체 안에서 겪었을 어려움이나 갈등을 생각해 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리해 보자.
- (2) 일한과 영광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113) 최원식 외, 앞의 책, 2020. 304쪽.

114) 최원식 외, 위의 책, 2020. 304쪽.

3. 아래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길러 보자

(1) 이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 되어 다음 영화 평에 댓글을 달아보자.

<p>영화에서 영광이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묘사된 것 같아 보기에 조금 불편했어요.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과 무조건 연민을 보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p>	<p>영화를 보고 평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가졌던 편견을 버릴 수 있었어요. 순수하고 순진한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p>
---	---

(2) 문학의 생활화를 통해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자.¹¹⁵⁾

목표 학습 활동은 ‘일한’과 ‘영광’이 겪은 어려움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활동은 ‘학습 활동 3번’이다. 이 활동에는 「마이 리틀 히어로」를 관람한 관객들의 영화평이 있다. 왼쪽의 영화평은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 오른쪽의 영화평은 영화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으로 긍정적 평가이다. 왼쪽의 영화평은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지적한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는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영광’이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도움을 받는 과정이 당연하게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왼쪽의 영화평은 긍정적인 오른쪽 영화평과 비교되어서 학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한 동정의 시선을 바꾸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명랑한 밤길」은 ‘좋은책신사고’ 『문학』과 ‘지학사’ 『문학』에 있는 작품이다. ‘좋은책신사고’ 『문학』에서는 ‘5-(2) 문학의 생활화’ 단원의 대표 작품으로, ‘지학사’ 『문학』에서는 ‘1-(2) 문학의 가치’ 단원에서 「비 오는

115) 김동환 외, 앞의 책, 2019. 47-48쪽.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의 학습 활동의 작품으로 실렸다. 「명랑한 밤길」(좋은책신사고 , 『문학』)과 관련된 목표 학습 활동은 ‘깊이 알기’로 구현되었는데, 그 활동은 다음과 같다.

2. 이 소설과 다음 시를 함께 감상하고, 소설 속 ‘나’와 다음 시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타자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 보자.¹¹⁶⁾

학습 활동 2번에서 「명랑한 밤길」과 함께 감상하고자 한 작품은 정호승의 「수선화에게」이다. 작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 「수선화에게」)¹¹⁷⁾

「수선화에게」의 화자는 삶에서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숙명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 외에 ‘하느님’, ‘새들’, 물가에 앉아 있는 ‘네’, ‘산 그림자’, ‘종소리’도 모두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들이라 말한다. 즉, 화자는 자신과 세상의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외로움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116) 이승원 외, 앞의 책, 2019. 314쪽.

117) 이승원 외, 위의 책, 2019. 314쪽.

통해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수선화에게」의 화자와 「명랑한 밤길」의 ‘나’, ‘싸부딘’, ‘간주’는 기록하지 않은 삶을 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태도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두 작품을 비교하는 활동은 「명랑한 밤길」이 타자와의 공감대 및 유대감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을 통해 학습될 수 있는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방지하는 학습 활동으로의 역할은 부족해 보인다.

‘금성’ 『문학』에는 두 개의 작품이 있다. 「썩썩오, 썩썩오」는 ‘6-(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를 향하여’에, 「나는 말랄라」는 ‘6-(2)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에 있다. 「썩썩오, 썩썩오」의 목표 활동인 ‘초점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썩썩오, 썩썩오>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자
(1) 독일 학교의 ‘선생님’과 반장 ‘잉가’가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평가해보자.
(2)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생각하며, 자신이 같은 반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투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자.
2. ‘응웬 아줌마’네 가족들의 참상을 대하는 엄마와 아빠의 태도 중 자신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밝혀 보자.¹¹⁸⁾

‘초점 활동’은 ‘선생님’과 ‘잉가’가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평가하는 활동, ‘응웬 아줌마’네 가족들의 참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엄마와 아빠의 태도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활동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의 중요성은 ‘초점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두 활동은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하게 되는 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지 못한다. 연구자가 ‘초점 활동’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활동은 ‘확장 활동’이다. ‘확장 활동’은 문화를 바

118) 류수열 외(a), 앞의 책, 2019. 304쪽.

라보는 평등한 시선을 강조한다. ‘확장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다음은 19세기에 청나라를 다녀온 경험을 기록한 사행 가사이다. 이를 읽고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청나라 문화에 대한 서술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 청나라 문화에 대한 서술 :
- 다른 문화에 대한 작가의 의식 :

(2) (1)에서 파악한 작가의 의식을 다문화 사회인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3) 「썬짜오, 썬짜오」와 이 작품을 비교하면서, 다른 문화를 대할 때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토의해 보자.¹¹⁹⁾

‘확장 활동’의 사행 가사는 홍순학의 「연행가」이다. 제시된 「연행가」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집집마다 만주 사람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옷차림이 괴이하여 처음 보기에 놀랍도다.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땡아 늘어뜨려
당사실로 땡기를 드리고 마래기 모자를 눌러 쓰며,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질 한 번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빛이요 손톱은 다섯 치라.

(중략)

119)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305쪽.

발 맵시를 볼작시면 수놓은 당혜(唐鞋)를 신었으며,
 청나라 여자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같으나,
 한족(韓族)의 여자는 발이 작아 두 치썸 되는 것을
 비단으로 꼭 도이고 신 뒤축에 굽을 달아.
 위뚝비뚝 가는 모양 넘어질까 위태롭다.
 그렇다고 웃지 마라. 명나라 끼친 제도
 저 계집의 발 한 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홍순학, 「연행가」 일부분)¹²⁰⁾

「연행가」는 청나라 문화를 괴상하고 이상한 것으로 표현한다. 또한, “명나라 끼친 제도 저 계집의 발 한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¹²¹⁾”라고 하며 명나라에 대한 화자의 우월적 시선도 나타난다. 명나라와 청나라 문화에 대한 시선은 다문화 사회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시각과 태도에 대해 알아가기 위한 소재로 적합하다. 하지만 「연행가」는 「썩짜오, 썩짜오」처럼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시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시선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작품을 학습 활동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말랄라」의 ‘초점 활동’과 ‘확장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초점 활동

1. 「나는 말랄라」를 통해 문학 활동과 공동체 문화 발전과의 관련성을 탐구해 보자

(1) ‘말랄라’의 글을 통해 느낀 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말랄라’가 자신의 삶을 글로 남긴 이유를 파악해 보자.

120)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305쪽.

121)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305쪽.

(2) (1)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과 공동체 문화 발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해 보자.

2.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최근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문학 활동을 떠올려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¹²²⁾

- 확장 활동

3. 다음 시(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를 「나는 말랄라」와 견주어 읽고 공동체 문화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이 시가 창작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보자

(2) 이 시에서 ‘할머니’는 꽃씨를 받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지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3) 이 시와 「나는 말랄라」의 인물이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고, 이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를 파악해 보자.¹²³⁾

「나는 말랄라」의 ‘초점 활동’과 ‘확장 활동’은 문학이 공동체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 ‘초점 활동’은 「나는 말랄라」를, ‘확장 활동’은 새로운 작품을 활용하여 문학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확장 활동’에 제시된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어찌다 된

122)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320-321쪽.

123)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320-321쪽.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숫제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풀
저런 풀
다 보지 않았으련만……

글쎄 할머니,
그걸 어찌란 말씀이시오.
숫제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털으시리라.(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¹²⁴)

‘할머니’는 방공호 위에서 채송화 꽃씨를 받으며, 전쟁의 상황에 대한 노여움을 표현한다. 하지만, ‘할머니’가 방공호 안에 숨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꽃씨를 받는다는 것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다. 「나는 말라라」와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하지만 「나는 말라라」는 읽는 이에게 직접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는 절망 속에서 꽃씨를 받는 행위를 통해 희망

124) 류수열 외(a), 위의 책, 2019. 321쪽.

을 놓지 않음을 보여준다. ‘확장 활동’은 두 작품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는 문학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점 활동’과 ‘확장 활동’ 모두에서 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줄 수 있는 학습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활동은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겐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의 활동이다. 작품은 ‘해냄에듀’ 『문학』 ‘5-(1) 문학을 통한 성찰과 소통’ 단원에 있다. 목표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4.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1) 모둠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장벽’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 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2) 모둠원들과 (1)의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배경 등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자.

(3) 모둠원들과 만든 질문의 답을 찾아 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해 보자.¹²⁵⁾

목표 학습 활동은 작품에서 표현하는 ‘장벽’을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다. 자신이 쌓아 놓은 ‘장벽’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활동은 자신을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활동

125) 조정래 외, 앞의 책, 2019. 307쪽.

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학』 교과서에서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과 관련된 제재는 다문화 제재이다. 다문화 제재는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문화 다양성 존중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문화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앞서 소개된 작품들은 특정 국가 출신의 인물과 부정적 상황을 연결한다. 타자 이해의 교육으로 사용된 위의 제재들은 ‘나’ 외의 타자를 타 국가의 인물로 소개하며 인물에게 부정적 상황을 연결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편견, 고정 관념 등을 형성한다. 특정 국가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의 권력 위계가 문화 수준의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제재에서 국적에 따라 인물들이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 간의 힘과 권력 차이 때문이다. 앞서 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의 감정이 특정 국가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국가 간의 힘과 권력의 차이가 문화 차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차이가 타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는 특정 국가와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형성될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뜨려줄 학습 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작품들에 편향적 시선이 있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에도 확연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서에 있는 기존의 작품을 활용하여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의 학습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IV.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

다문화 작품과 활동을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다문화 작품에 등장하는 국가의 부정적 이미지가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작품에 등장하는 국가 간의 권력 관계가 문화 수준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정 국가와 문화에 편견과 고정 관념이 형성될 우려가 있지만 이를 깨뜨려줄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잠재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뜨려주는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학』 교과서의 다문화 제재와 관련된 학습 활동은 타자 이해,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활동과 문제 해결 활동 등이다. 「썬짜오, 썬짜오」,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겐 없는 것에 대해 애정입니다」, 「명랑한 밤길」(지학사, 『문학』)의 학습 활동은 주로 타자를 이해하는 활동이며, 「나는 말랄라」, 「붉은 꽃, 흰 꽃」, 「명랑한 밤길」(좋은책신사고, 『문학』), 「힘내라, 네팔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 「마이 리틀 히어로」의 학습 활동은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다문화 작품을 통해 타자 이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태도 교육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교과서의 활동들은 각 단원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학』 교과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활동, 문제 해결 활동을 포함한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가치 탐구 학습을 활용한 문화 다양성 존중 활동

1) 가치 탐구 학습 활동의 재구성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¹²⁶⁾,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¹²⁷⁾,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¹²⁸⁾이라는 뜻이다. ‘쓸모’, ‘중요성’, ‘욕구나 관심의 대상’, ‘목표’라는 뜻이 있는 ‘가치’는 보이지 않지만,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가치관은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수많은 ‘가치’들이 구성 요소로 존재한다. 가치관은 개인의 신념, 삶의 기준점,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이다.¹²⁹⁾ 이는 올바른 가치와 가치관이 개인의 삶의 태도, 사회·집단·문화 공동체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가치는 다원적 공동체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국어과는 가치관 교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어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문학 작품 안에는 심미적·문화적·윤리적·사회적·정치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다양한 가치의 경험과 보편적이면서 적절한 가치 갈등 양상을 경험하게 한다. 국어과는 가치관 교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에 활용되기도 한다.¹³⁰⁾

126)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치” 자료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접속 일자 : 2022. 04. 20).

127)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치” 자료2,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접속 일자 : 2022. 04. 20).

128)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치” 자료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접속 일자 : 2022. 04. 20).

129) 김철민, 「가치관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개념 정의, 가치요소와 측정 방법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소』 6,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9. 53-54쪽.

130) 최미숙 외, 앞의 책, 2020. 25쪽.

‘가치 탐구 학습’은 국어과의 가치관 교과로서의 성격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이다.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은 작품 속의 가치를 탐구하고, 주제적 관점에서 가치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모형이다.¹³¹⁾ 최미숙 외(2020)는 가치 탐구 학습의 과정을 <표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7> 가치 탐구 학습 과정 (최미숙 외, 앞의 책, 2020. 103쪽.)

과정	주요 활동
문제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 학습 문제 확인 • 문제 상황 분석
가치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발견 또는 추출 • 발견 또는 추출한 가치의 근거 확인
가치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의 비교 및 평가 • 가치의 선택
가치 일반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의 적용 • 가치의 재평가

최미숙 외(2020)는 각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제 분석하기 단계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가치를 포함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가치 확인하기 단계는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치를 확인하고 근거를 찾는 단계이다. 가치 평가하기 단계는 확인된 가치를 비교, 분석, 비판하여 평가하고 선택하는 단계이다. 가치 일반화 단계는 분석하고 평가한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구성하고, 언어생활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고 재평가하는 단계이다.¹³²⁾

류수열 외(2018)도¹³³⁾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을 정리하였는데, 최미숙 외(2020)와 다르게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을 ‘사회·역사적 가치 탐구 중심의 교

131) 최미숙 외, 위의 책, 2020. 102쪽.

132) 최미숙 외, 위의 책, 2020. 103쪽.

133) 류수열 외(b), 『문학교육개론 II - 실제편』, 역락, 2018.

수·학습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표8> 사회·역사적 가치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류수열 외(b), 『문학교육개론 II - 실제편』, 역락, 2018. 148쪽.)

과정	주요 활동
(1) 가치의 인식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읽기 •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구성하기 •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정치적 가치 발견하기
(2) 가치의 비교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와 작품에서 발견한 가치를 비교하기 • 작품에 나타난 가치를 비판적으로 살피기 • 작품에서 의문시하는 사회적 가치의 타당성 생각하기
(3) 가치의 자기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나타난 가치에 대한 의견 밝히기 • 자신의 가치 체계와 비교하며 작품의 가치 평가하기 • 독자 자신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 조정하기

류수열 외(2018)는 문학이 사회, 문화, 정치 등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¹³⁴⁾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을 사회·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류수열 외(2018)가 정리한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은 사회·역사적 가치 탐구에 초점이 있지만, 최미숙 외(2020)가 정리한 가치 탐구 학습 과정과 흐름이 유사하다. 하나로 정리한 두 모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9> 가치 탐구 학습 모형 단계 재구성

	활동
1	작품 읽기 (학습 문제 확인, 문제 상황 분석)
2	가치 발견 또는 추출하기
3	발견 또는 추출한 가치의 근거 확인하기
4	작품에서 발견한 가치와 보편적 가치 비교 및 평가하기
5	가치 적용하여 나타내기

134) 류수열 외(b), 위의 책, 2018. 149쪽.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은 <표9>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작품 읽기’, ‘가치 발견 및 추출하기’, ‘발견 또는 추출한 가치의 근거 확인하기’의 단계는 앞서 최미숙 외(2020)와 류수열 외(2018)가 정리한 단계와 비슷하다. 대신, 4단계와 5단계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4단계, ‘작품에서 발견한 가치와 보편적 가치 비교 및 평가하기’는 작품에서 발견한 가치와 기존에 가치를 비교하고 새로운 가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5단계, ‘가치 적용하여 나타내기’는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활동과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하며 발견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에서 ‘작품 읽기’ 단계(1단계)와 ‘가치 적용하여 나타내기’ 단계(5단계)는 기존의 가치 탐구 모형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이어 전개될 내용인 ‘2) 국가 바꿔 읽기 활동’과 3)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성취기준은 [12문학 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¹³⁵⁾와 [12문학 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이다.¹³⁶⁾ [12문학 04-01]은 성취기준 해설이 없으나, [12문학 04-02]에는 성취기준 해설이 있다.¹³⁷⁾ 해설에는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¹³⁸⁾라는 내용이 있다. 성취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

135) 교육부(c), 앞의 자료, 2015. 130쪽.

136) 교육부(c), 위의 자료, 2015. 130쪽.

137) [12문학 04-02] 이 성취기준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습자는 문학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학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138) 교육부(c), 앞의 자료, 2015. 130쪽.

는 활동, 토의 활동, 모둠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을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습 활동은 성취 기준을 충족하게 위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은 성취기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인 활동이 아닌, 모둠 활동을 전제로 진행한다. 1-4 단계에 해당하는 ‘작품 읽기’, ‘가치 발견 또는 추출하기’, ‘발견 또는 추출한 가치의 근거 확인하기’, ‘작품에서 발견한 가치와 보편적 가치 비교 및 평가하기’는 모둠 토의 활동으로, 5단계 ‘가치 적용하여 나타내기’는 모둠 문제 해결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또래 학습자와 같은 학습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토의 활동은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토의 과정은 생각의 명료화와 심화를 도울 수 있으며,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도 함양하게 한다.¹³⁹⁾ 학습자는 하나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협력의 태도 또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 바꿔 읽기 활동

이 장은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자료에 관한 부분이다.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의 첫 번째 단계인, ‘작품 읽기’는 학습자에게 두 가지의 텍스트를 제공한다. 하나는 본래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국가’를 바꾼 텍스트이다.

앞서 다문화 작품을¹⁴⁰⁾ 분석한 내용에서는 특정 국가와 연결된 인물의 부정적 상황이 국가 편견 및 고정 관념을 형성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였다. 예컨대 「붉은 꽃, 흰 꽃」에서 그려지는

139) 추성경·손은주,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과학사, 2019. 52쪽.

140) 「씬짜오, 씬짜오」,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겐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명랑한 밤길」, 「나는 말팔라」, 「붉은 꽃, 흰 꽃」, 「힘내라, 네팔 -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반1」, 「마이 리틀 히어로」

‘프엉’씨의 안타까운 상황이 ‘프엉’씨가 온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붉은 꽃, 흰 꽃」은 ‘프엉’씨를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 호찌민, 버스, 여덟 시간, 까마우, 더워”¹⁴¹⁾라고 표현하며 ‘프엉’씨가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 “오늘은 수술한 남편 대신 혼자서 / 생선 장사를 거뜬히 해냈다고”¹⁴²⁾, “손을 씻어도 비린내는 희미하게 퍼지고 / 프엉 씨는 말개진 얼굴로 또 미안해 한다”¹⁴³⁾ 라고 하며 베트남에서 온 ‘프엉’씨의 고달픈 삶을 그린다. ‘프엉’씨와 같은 삶은 한국 사람도 충분히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배경으로 인물을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인물이 속한 국가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붉은 꽃, 흰 꽃」에서와 마찬가지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문학』 교과서 속 다문화 제재 대부분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인물을 국가 배경으로 그리며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및 고정 관념을 형성하게 한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편향된 시선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바꿔 읽기’는 말 그대로 기존의 교과서에서 제시한 제재의 국가를 바꿔 다르게 작품을 읽는 것을 뜻한다. 문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다룬다. 상상 차원에서 가능한 세계도 작품 안에서는 다룰 수 있다.¹⁴⁴⁾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바꿔 읽기’는 인물의 배경이 되는 국가를 바꿈으로, 작품을 다르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경험은 잠재적으로 학습된 국가에 대한 편향적 시선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작품을 읽고 드는 생각과 감정이 인물의 국가 배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학습자가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붉은 꽃, 흰 꽃」의 ‘프엉’씨가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면 어땠을까. ‘프엉’씨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141) 방민호 외, 앞의 책, 2019. 314쪽.

142) 방민호 외, 위의 책, 2019. 314쪽.

143) 방민호 외, 위의 책, 2019. 314쪽.

144)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2017, 87쪽.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던 것이라면, ‘프엉’씨의 국가를 바꿨을 때 우리는 같은 감정이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남편 없이 홀로 생선 장사를 하는 상황에서 여지 없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 감정은 ‘프엉’씨가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생긴 것이다.

같은 내용의 구성이지만, 본래의 설정과 배경을 달리하였을 때 학습자가 느끼는 바는 기존의 텍스트를 읽었을 때와는 다르다. ‘국가’를 바꿔 재구성한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제재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정 국가에 대한 편향적 시선을 깨닫고, 동등한 시선에서 국가와 인물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질 베르분트(Gilles Verbunt)는 차별과 낙인찍기가 있는 사회 속에서 상호문화는 없다고 말했다.¹⁴⁵⁾ 이는 차별과 낙인찍기를 삭제하고 국가와 인물을 동등한 시선에 바라보는 것이 상호문화적 관점을 갖추는 일, 즉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자와 국가를 바라보는 동등한 시선은 인물과 국가가 만든 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바꿔 읽기’ 활동은 문화 다양성 존중의 기본적 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는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의 ‘가치 적용하여 나타내기’ 단계(5단계)이다. 앞서 연구자는 [12문학 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¹⁴⁶⁾의 성취기준에 따라, 구성된 교과서의 기존 활동을 수용

145) 질 베르분트, 앞의 책, 2012. 82-83쪽.

146) 교육부(c), 앞의 자료, 2015. 130쪽.

하여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은 ‘작품 읽기’, ‘가치 발견 또는 추출하기’, ‘발견 또는 추출한 가치의 근거 확인하기’, ‘작품에서 발견한 가치와 보편적 가치 비교 및 평가하기’ 활동으로 국가에 대한 편견 및 고정 관념이 수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진행된다.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의 첫 번째는 제재에 등장한 나라의 문화 조사이다. 문화 조사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가지 방법은 다문화 제재에 문화가 담겨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제재 속에 등장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다문화 제재는 다양한 국가가 배경이 되는 만큼, 제재에 등장하는 나라의 문화가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제재에 등장하는 나라의 문화를 학습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다. 다문화 제재는 다양한 문화를 담을 수 있지만, 다문화 제재라고 해서 특정 문화가 꼭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알게 해주고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의 두 번째는 조사한 다양한 문화를 활용하여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및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이 있는 사람에게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 가치관을 인정하는¹⁴⁷⁾ 태도를 전달하는 활동은 다원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앞으로의 공동체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는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지 못한 가상의 독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의 예는 문화적 융화를 주제로 하는 소설 창작 활동, 상대론적 관점 즉,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

147) 최미숙 외, 앞의 책, 2020. 359쪽.

하는 팸플릿 만들기 활동, 국가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뜨려 줄 수 있는 포스터 만들기, 카드 뉴스 만들기 활동 등이 있다.

학습자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문화 존중 태도의 가치를 생각하고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활동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와 앞으로 맞이할 문화를 동등한 입장에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겸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학습 활동 설계

: 「명랑한 밤길」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한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의 예를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을 통해 소개하겠다. 「명랑한 밤길」은 ‘좋은 책신사고(이승원 외, 2019)’와 ‘지학사(정재찬 외, 2021)’ 『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다. 「명랑한 밤길」은 ‘지학사(정재찬 외, 2021)’에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와 비교하여 읽는 활동 제재로, ‘좋은책신사고(이승원 외, 2019)’에서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 작품으로 실렸다.

「명랑한 밤길」은 200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작품에서 나타나는 배경이 현재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명랑한 밤길」의 ‘나’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느끼는 유대감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를 듣는 행위를 통해 생긴 것이므로 현재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유대감과는 다르다. 또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밤길, 즉 인물들의 처한 그 시절의 문제 상황이 현재와 같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지금도 존재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도 존재한다.¹⁴⁸⁾ 그러므로

148)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편견과 고정 관념의 시선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앙선데이, “‘까무잡잡하다며 ‘똥남아인’ 깔봐” 일손 돕는 이주민 ‘내로남불’ 비하 심해” 기사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 비하, 사생활 간섭, 불쾌한 시선 등의

「명랑한 밤길」은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생기는 유대감일지라도 그들을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을 담고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명랑한 밤길」은 공동체 역량 함양에도 적합한 제재이다. 지금부터는 「명랑한 밤길」이 어떠한 점에서 공동체 역량 함양에 적합한 제재인지 알아보고, 공동체 역량을 위한 교육 제재로서 갖는 한계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명랑한 밤길」이 대표 제재로 있는 ‘좋은책신사고(이승원 외, 2019) 『문학』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의 예를 들고자 한다.

1) 「명랑한 밤길」과 공동체 역량

「명랑한 밤길」의 ‘나’는 시골을 벗어나 도시로 가고 싶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도시로 가기 위해 간호학원을 다녔다. 하지만 간호학원을 마치자마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가 오고 만다.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나’가 어머니를 돌보게 된다. 그렇게 도시를 향하는 ‘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그런 ‘나’에게 도시에서 온 듯한, 적어도 이 시골 사람이 아닌 듯한 남자가 나타난다. 남자와 ‘나’는 환자와 간호조무사로 만났다. 남자는 아픈 자신을 돌봐준 ‘나’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였고, 그 말을 시작으로 둘은 가까워졌다. ‘나’는 도시에서 온, 이 고장의 사람이 아닌 그 남자를 선망했고, 존경했다. ‘나’의 애절한 감정과 달리 남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나’를 무시한다. 상처를 받은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깡쭈’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데이, “‘까무잡잡하다며 ‘똥남아인’ 깔봐” 일손 돕는 이주민 ‘내로남불’ 비하 심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2654#home>), (접속 일자 : 2022. 06. 13)

와 ‘싸부딘’의 대화를 듣게 된다. ‘나’는 그 대화 속에서 말 한번 섞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삶의 위로를 받는다.

「명랑한 밤길」에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태도와 그들이 바라보는 타자에 대한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내용은 ‘Ⅱ. 2015 교육과정과 문화 다양성 존중’의 ‘3. 공동체 역량의 요소’에서 추출한 공동체 역량 하위 요소와 연결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명랑한 밤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가 어떤 점에서 공동체 역량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 「명랑한 밤길」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명랑한 밤길」에서는 ‘나’의 삶의 태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골을 떠나 도시로 떠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다. 열망을 좇아 간호학원을 다녔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병으로 꿈이 좌절되고 만다.

아욱을 포기해버릴까? 꽃이 핀 아욱을 보면 왠지 무섭증이 인다. 야들야들한 아욱잎이 주던 기쁨, 그 보드라운 잎을 뜯어 부드러운 아욱된장국을 끓여먹었던 행복감에 비례해서 부송부송하게 꽃이 돌아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뻗뻗해진 아욱잎을 보면 생에 대한 아득한 절망감이 엄습해온다. (공선옥, 『명랑한 밤길』)149)

‘나’는 부드러웠던 아욱잎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으며 행복했던 예전과 달리, 꽃이 핀 아욱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고, 뻗뻗해진 아욱잎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된장국을 끓여 먹은 부드러운 아욱잎과 쇠어 버려 절망감을 주는 아욱잎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대조적이다. 아욱잎은 도시로 가는

149) 공선옥, 『명랑한 밤길』, 창비, 2009, 104쪽.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나’와 그 꿈이 좌절되어버린 현재의 ‘나’와 겹쳐진다.

야들야들한 아욱이 어느새 부송부송 꽃을 피우는 동안 아욱밭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그 아욱밭은 잊고 있던 동안의 나의 행적이 스스로 무서운 것이다. 아욱이 꽃을 피고 꽃이 지고 아욱은 늙어가고 이윽고 녹아 없어져버린 연후에야 내가 아욱밭에 와서, 아욱밭에 주질러 앉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욱을 찾느라 슬피 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진저리를 치는 것이다.(공선옥, 『명랑한 밤길』)150)

‘나’는 아욱잎이 뺏뺏해질 때까지 아욱잎을 잊고 있었던 자신의 행적이 무서웠다. 그리고 아욱이 없어지고 나서 슬피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에 진저리친다. 돌보지 못해 사라진 아욱잎처럼 자신의 삶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불길함이 ‘나’에게 몰아쳐 오는 것이다.

꿈이 좌절된 ‘나’에게 주체적인 삶은 없었다. 없어진 아욱잎처럼 ‘나’의 삶은 방치되었다. 도시로 가려는 열망이 좌절된 ‘나’는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버려진 열망을 묻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불안정한 삶의 태도를 가진 ‘나’에게 낯선 이가 나타난다.

남자는 이 시골 사람이 아니다. 남자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시골의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남자와 ‘나’는 환자와 간호조무사로 만난다. 남자는 병원이 문 닫는 시간에 의사도 없이 자신을 돌봐준 ‘나’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한다. 남자는 ‘나’의 전화번호를 받아가고 이내 연락을 했다. ‘나’는 봄밤에 남자를 만난다.

150) 공선옥, 위의 책, 2009. 104쪽.

남자가 히터를 틀어주었다. 음악도 틀어주었다. 나는 낮게 읊조렸다. 별이 빛나는 밤에

“프랑크 뿌룻셀의 메르씨 세리예요”

나는 부끄러웠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남자가 존경스러워졌다. 뭔가를 정확히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는 여자에게 확실히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부끄럽고 남자가 존경스러운 것이 슬펐다.(공선옥, 『명랑한 밤길』)151)

‘나’는 내가 모르는 노래의 제목을 알려주는 남자를 보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자처럼 가르쳐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남자가 존경스러운 것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

“알지요? 빌리 할리데이, 스몰게츠인유어아이스”

나로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 제목을 남자는 유연하게, 그리고 야속하게도 너무 빠르게 발음했다. 남자가 발음하는 노래 제목들이 나는 낮설고 생경했다.(공선옥, 『명랑한 밤길』)152)

뭔가 낮설고 낮설어서 달착지근한 공기가 내 몸속에 스미고 내 영혼을 적시고 있는 느낌이 꼭 싫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남자가 이 고장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흥분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공선옥, 『명랑한 밤길』)153)

남자와 보내는 시간은 낮섬의 연속이다.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이 싫지 않다. 그 이유는 남자가 이 고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나’가 자신을 부끄럽게 느낀 것과 남자의 존경스러움에 슬픔을 느낀 이유도 남자가 이 고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자신이 모르는 노래의 제목을 아는 도지에서 온 남자가 존경스럽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에 슬픈 느낌

151) 공선옥, 위의 책, 2009. 111쪽.

152) 공선옥, 위의 책, 2009. 112쪽.

153) 공선옥, 위의 책, 2009. 113쪽.

을 감출 수 없던 것이다.

나는 나의 스물한살 봄밤을 그와 함께 먼먼 나라, 그가 없으면 닿을 수 없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만 같았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낯설고 아득한 나라를, 그가 있어야만 닿을 수 있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그래서 슬펐다. 아름답고 슬프고 쓰라린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번에는 낮익고 낮익어서 슬픈 풍경과 맞닥뜨려야만 했다.(공선옥, 『명량한 밤길』)154)

‘나’는 도시로 갈 수 없는 자신의 절망을 남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나’는 ‘나’ 혼자서 갈 수 없는 낯선 곳을 남자와 함께여야만 갈 수 있다. ‘나’는 남자와 헤어지면 익숙한 현실을 마주하는 슬픔을 겪는다. ‘나’는 ‘나’라는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보다 낯섬을 선물하는 남자에게 기대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니 남자는 ‘나’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오지도 않는다. ‘나’는 집에서 농사를 짓느냐는 남자의 말에 농사를 지을 땅과 사람이 없음에도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선 찌개에 넣을 무공해 고추랑 파가 필요하다는 남자의 말에 선뜻 가져다주겠다고 말한다. ‘나’는 자신에게 낯섬의 여행을 줄 수 있는 남자를 잃지 않기 위해 남자를 위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자만을 생각하며 무공해 채소를 가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남자는 ‘나’를 만나지도, 채소를 받지도 않았다. 오히려 손에 피가 나도록 텃밭을 가꾼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남자의 집에 가는 택시비 때문에 통화 중 다른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는 장치도 하지 못했다는 ‘나’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나’는 그의 조롱과 비웃음에 배운 사람이 스물한살 처녀에게 이렇게 대하면 죄를 받는다고 말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었다.

154) 공선옥, 위의 책, 2009. 114쪽.

‘나’에게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적립되어있는 상태였다면, ‘나’는 도시 남자에게 그리 흔들리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좌절된 자신의 열망을 남자에게 대입하였고 결국 남자의 변덕과 조롱에 상처를 입는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로 등장하는 ‘간쭈’는 ‘나’와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인다. 작품의 뒷부분에는 ‘나’가 ‘간쭈’와 ‘짜부딘’의 대화 내용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짜부딘, 사장이 너무 불쌍해”

“난 사장 죽도록 미웠어. 간쭈, 너 때문에 오늘 일 다 망친 거야”

“난 사장님, 돈 쥐 소리 못하겠어. 사장 돈 없어. 몸 아파. 어머니 아파, 사장 슬퍼.”(공선옥, 『명랑한 밤길』)155)

‘간쭈’와 ‘짜부딘’은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간쭈’와 ‘짜부딘’은 사장에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장이 죽도로 미운 ‘짜부딘’과 다르게 ‘간쭈’는 사장의 사정을 생각하며 쉽게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한다. 사장에게 진짜 돈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간쭈’는 돈이 없다는 사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이런 모습은 도시에서 온 남자의 속도 모른 채 남자를 위해 노력하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간쭈’와 ‘나’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간쭈, 넌 너희 나라 가면 뭐 할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 볼 거야.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짜부딘은?”

“여동생이 한국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155) 공선옥, 위의 책, 2009. 124쪽.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

“짜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어져.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공선옥, 『명랑한 밤길』)156)

방글라데시에 아무도 없는 ‘짜부딘’과 달리 ‘간쭈’는 네팔에 가면 부모님, 누나, 여동생, 사촌 등이 있다. 또, ‘간쭈’는 힘이 들면 위로의 노래를 부르거나 꿈 속에서 네팔의 달을 본다. 먼 타지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스스로 위로의 노래를 부르며 ‘간쭈’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이유 즉,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팔에 돌아가면 만날 수 있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희망이 되는 네팔의 달이 ‘간쭈’가 ‘간쭈’로 존재하는 삶의 뿌리가 되어준다. 이는 남자에게서 좌절된 열망을 찾으려 했던 ‘나’와 다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나’와 정체성의 뿌리가 견고한 ‘간쭈’의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낯선과 다양한 타자가 존재하는 다원적 공동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된다. ‘나’와 ‘간쭈’의 대비되는 모습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

「명랑한 밤길」에는 서로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인물은 한평생 시골에서 자란 ‘나’,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간쭈’와 ‘짜부딘’이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산다. 하지만 각자가 사는 생활은 모두 다르다. ‘나’는 나에게 익숙한 생활이, 남자에게는 남자에게 익숙한 생활이, 그리고 ‘간

156) 공선옥, 위의 책, 2009. 124쪽.

쭈'와 '짜부딘'에게는 또 그들에게 익숙한 생활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영역은 공간에 적합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영역은 작은 문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타자를 대하는 모습이 다른 문화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에게서 나타난다. 하나는 남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나'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태도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남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타자에 대한 태도이다.

남자가 방문을 열자 거기에는 여태까지 내가 보통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다. 책은 책장에도 꽂혀 있고 방바닥에도 쌓여 있었다. 책뿐이 아니었다. 책장과 벽에는 영화포스터와 엽서와 사진과 오려진 신문기사 조각들이 압정에 꽂혀 있었다. 방 안은 대체로 정갈했다. 남자는 집 안에 들어와서도 음악을 틀었다. 나는 이번에는 소리내지 않고 입만 달싹여서 노래를 기억해냈다. 테이스터스 초이스, 아니 에스콰이어인가? 남자가 커피를 끓여 내왔다. 진한 커피향이 방 안에 가득 찼다.(공선옥, 『명랑한 밤길』)157)

'나'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자의 삶을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남자의 낮은 삶은 도시를 열망하는 '나'에게 꿈만 같은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의 삶이 진정 '나'의 삶보다 더 우월한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나'가 남자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로지 도시에 대한 선망과 낮삶에서 오는 설렘이기 때문이다.

반면, 남자는 우월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 남자가 의원에 환자로 왔을 때, '나'는 남자의 상태가 호전되도록 도왔다. 남자는 '나'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연락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남자는 '나'에게 관심을 거둔다. 그리고 통화 연결 설정을 장치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나'를 조롱하고 무시한

157) 공선옥, 위의 책, 2009. 112쪽.

다.

“내가 잘 나가는 사람 같으면 뭐 이런 데서 이려고 있겠냐? 나도 누구처럼 여권만 된다면 너같이 꽤먹지 못한 계집애한테 이런 수모를 당할 사람이 아니란 거 알아? 야, 내가 아무리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산다고 니 눈에 내가 거지로 보이냐? 이거 필요 없으니 가져가. 쌍. 촌년이 발랑 까져가지구서는. 예잇 재수없어.”(공선옥, 『명랑한 밤길』)158)

남자는 나에게 고마워서, 은혜를 갚고 싶으므로 만남을 청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나’와 ‘나’가 살아가는 공간을 무시했다.

남자와 ‘나’의 관계에서 발견한 두 가지 시선은 선망하는 시선과 무시하는 시선이다. ‘나’는 남자의 삶의 영역을 선망하고 있으며, 남자는 자신의 처지보다 ‘나’의 삶이 열등하다고 여긴다. 두 사람의 시선은 타자를 바라보는 잘 못된 시선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나’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발견한 타자에 대한 시선이다. ‘나’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발견한 타자에 대한 시선은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부르며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나를 흘끗거리자 만배가 침을 뱉듯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안마, 함부로 입맛 다시지 말고 빨리빨리 일해. 일”

그랬더니 얼굴이 검고 목이 검고 손이 검고 몸피가 가늘고 눈이 가는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씨익 웃으며 대꾸하는 것이다.

“안마, 하부로 이마싸지 말고 빨리빨리.”

나는 커피고 뭐고 만정이 다 떨어졌다.

농동단지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사장이고 사원이고 간에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고 하여간 저질이라고 수아는 질색했다. 수아도 나와 똑같은

158) 공선옥, 위의 책, 2009. 121-122쪽.

경험을 한 모양이다. 나도 수아의 말에 동의했다.(공선옥, 『명랑한 밤길』)159)

젊은 여자가 몇 없는 고장에서 ‘나’와 ‘나’의 친구 ‘수아’는 남성들의 눈에 띄었다. 그런 상황이 불편한 ‘나’는 갑자기 늘어난 농공단지의 외국인 노동자가 달갑지 않다. ‘나’는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사장이고 사원이고 간에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고 하여간 저질”160)이라고 말하는 ‘수아’의 말에 동의한다. 이 말은 ‘나’가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는161) 저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내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 남자에게 상처받은 날, ‘나’는 무공해 채소가 든 봉지를 들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비를 맞으며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두 명의 남자를 본다. 겁이 난 ‘나’는 소리 없이 정미소로 뛰어가고 뒤늦게 채소 봉지를 놓친 것을 안다. 그 덕에 남자들이 정미소 앞에 멈추었다.

정미소 앞에서 ‘나’가 놓친 채소 봉지를 보고 ‘깐जू’와 ‘짜부딘’이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내용은 사장에게 돈을 받지 못한 일, 고향에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 한국인 가족에게 폭력을 당한 일 등이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이들의 처지는 꿈이 좌절되고, 남자에게 상처받은 ‘나’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깐जू’와 ‘짜부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깐जू’는 ‘짜부딘’에게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를 불렀다며 자신만의 위로의 방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른다.

159) 공선옥, 위의 책, 2009. 106-107쪽.

160) 공선옥, 위의 책, 2009. 106쪽.

161) 공선옥, 위의 책, 2009. 106쪽.

두 사람이 빗속으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싸부딘과 간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그 길 건너 그 남자에 집이 보였다.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오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 불렀다.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디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봐……

나는 정미소를 나눴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 불렀다.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공선옥, 『명랑한 밤길』)162)

‘나’는 ‘간쭈’와 ‘싸부딘’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그들을 따라 노래를 불렀다.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어¹⁶³⁾ 저질로 생각했던 그들의 위로 방법을 ‘나’가 따라 했던 것은 그들에게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우리가 타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지향해야 하는 시선이다.

다원적 공동체 안에서 타자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의 첫 시작이다. 「명랑한 밤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시선은 읽는 이에게 어떤 시선과 태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타자를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게 도와줄 것이다.

「명랑한 밤길」은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과 다양성 이해를 위한 동등한 시선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제재로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나’와 ‘간쭈’와 ‘싸부딘’의 안타

162) 공선옥, 위의 책, 2009. 125쪽.

163) 공선옥, 위의 책, 2009. 106쪽.

까운 상황에서 발생한 시선의 변화를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나’가 ‘간쭈’와 ‘짜부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던 이유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시선의 변화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안타까운 시선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학습하는 편견의 시선을 깨고, 존중의 태도로 타자 및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2) 『문학』 교과서 속 「명랑한 밤길」 관련 활동 분석

‘좋은책신사고(이승원 외, 2019)’ 『문학』 교과서는 “문학 활동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¹⁶⁴⁾라는 학습 목표 안에서 「명랑한 밤길」을 교육 제재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교과서에 실린 「명랑한 밤길」의 소개 글이다.

이 작품은 사랑에 실패한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을 연결 지은 소설이다.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지니는 것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¹⁶⁵⁾

작품 소개 글을 통해 교과서 집필진이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학습 활동은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의 중요성을 알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164) 이승원 외, 앞의 책, 2019. 296쪽.

165) 이승원 외, 앞의 책, 2019. 308쪽.

<표10> 「명랑한 밤길」 이해하기, 깊이 알기 활동 (이승원 외, 위의 책, 2019. 313-314쪽.)

이해하기
<p>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p> <p>(1) 소설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보자.</p> <p>(2) 소설에 등장하는 노래 가사와 인물들의 상황을 연결 지어 이야기해 보자.</p> <p>(3) ‘나’가 ‘간쭈’와 ‘짜부딘’의 대화를 듣게 된 장면을 바탕으로, 소설의 마지막 장면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p>
<p>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p>
깊이 알기
<p>2. 이 소설과 다음 시를 함께 감상하고, 소설 속 ‘나’와 다음 시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타자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 보자.</p> <p>(정호승, 「수선화에게」)</p>

이해하기 활동과 깊이 알기 활동은 ‘유대감’에 중점을 맞춰 구성된 활동이다. 이해하기 활동은 소설 속 인물의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과 노래 가사와 인물의 상황을 연결 지어 그들의 심정을 파악하는 활동이며, ‘나’가 두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동질감을 느낀 것을 알게 한다. 이어서 네팔의 달을 보러 간다는 ‘간쭈’의 말을 따라 한국에 있는 ‘나’도 네팔의 달을 향해 나아간다는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타자와 동질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깊이 알기 활동은 이해하기 활동의 확장이다. 「수선화에게」는 괴로운 삶을 사는 ‘나’의 상황과 또 다른 괴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타자를 연결하여 동질감을 형성하고, 주어진 상황을 이겨 내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명랑한 밤길」에 등장하는 ‘나’가 ‘간쭈’와 ‘짜부딘’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명랑하게 삶을 다시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있다. 이로써 깊이 알기 활동도

동질감을 통한 타자와의 유대감 형성이 중요함을 알게 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표11> 「명랑한 밤길」 펼쳐 보기 활동 ((이승원 외, 위의 책, 2019. 314쪽.)

펼쳐 보기
<p>3. '상생과 공존의 문화 발전'을 주제로 모둠별로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자.</p> <p>(1)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그중에서 화제를 하나 골라보자.</p> <p>(2) (1)에서 결정한 화제를 '상생과 공존의 문화 발전'이라는 주제와 연결 지어, 공익 광고지를 만들어 보자.</p> <p>(3) 모둠별로 제작한 공익 광고를 함께 감상해 보고, 주제르 가장 잘 전달한 광고를 선정해 보자.</p>

펼쳐 보기 활동은 '상생과 공존의 문화 발전'을 주제로 하여 모둠별로 공익 광고를 만드는 활동이다. 앞서 살펴본 활동이 '유대감'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활동이라면 펼쳐 보기 활동은 '상호 존중감'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활동이다. '상생과 공존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감'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의 내용이 앞에서 했던 활동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에게 뜬금없는 활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제재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국가 또는 문화 간의 부정적인 시선을 학습하였을 때, '상생과 공존의 문화 발전'을 주제로 한 활동의 학습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펼쳐 보기 활동을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문화를 향한 평등한 시선과 올바른 가치를 함양하게 하여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활동이 달성하고자 했던 '상호 존중감'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3) 「명랑한 밤길」의 국가 바꿔 읽기 활동 적용

‘Ⅲ.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 과목 ‘문학’의 공동체 역량’에서는 「명랑한 밤길」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Ⅲ장의 ‘1) 작품 분석’에서는 「명랑한 밤길」이 인종을 구분하지 않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공감을 보여주지만,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와의 유대감 형성이 여자가 겪은 안타까운 상황과 결부되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부각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설에 등장한 나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음을 말하였다. 학습 활동은 작품 내용에서 유발되는 감정이 작품 속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이기에 특정 나라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며 특정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의 하나로 ‘국가 바꿔 읽기’를 제안하였다.

국가를 바꿔 텍스트를 재구성할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국가를 바꾸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를 이유 없이 바꾼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명랑한 밤길」에서 ‘깁쭈’는 네팔, ‘짜부딘’은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깁쭈’와 ‘짜부딘’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깁쭈’와 ‘짜부딘’은 비전문 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다.¹⁶⁶⁾ 우리나라에서 비전문 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

166) 우리나라의 체류자격의 종류로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이 있다. 이 중 비전문 취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 (접속 일자 : 2022. 04. 25).

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등에서 왔다.¹⁶⁷⁾ 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 국가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국가 바꿔 읽기’를 진행할 때 위의 나라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학습 활동에서 위의 나라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자에게 없었던 편견을 만드는 위험이 있다. 또한, 학습자가 위의 국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위의 국가로 ‘국가 바꿔 읽기’를 진행하는 것이 유의미한 학습 효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

남은 문제는 어떤 국가를 선정하여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가이다. 학습자에게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는 국가를 선정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가 선택한 방법은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익숙한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익숙한 나라를 교사의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사가 선입견 없이 나라를 선정한다고 하여도 특정 나라에 대한 교사의 선입견이 텍스트 채구성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가 교사의 개인적인 시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 바꿔 읽기’는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익숙한 나라를 직접 선정하여 텍스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

자기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익숙한 나라를 텍스트에 적용하여 읽는 방법은 인식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 학생이 바꿔 읽을 국가를 ‘미국’으로 선정하여 텍스트에 적용한다고 해보자. 익숙한 나라인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A’ 학생에게 있을 것이다. ‘A’ 학생이 ‘미국’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든 ‘미국’에서 온 ‘깐쭈’ 혹은 ‘싸부딘’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동일할 것이다. 동일한 감정은 자신이 익숙하게 느꼈던 국가와 작품에서 나타

167)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27_N001&conn_path=I2). (접수 일자 : 2022. 04. 25).

난 국가를 비교할 때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바꿔 읽기’는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익숙한 나라를 직접 골라 텍스트에 적용하여 읽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

4) 「명랑한 밤길」의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문화 조사 활동이며 두 번째 단계는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및 문제 해결 활동이다. 「명랑한 밤길」의 문화 조사 활동과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및 문제 해결 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명할 활동은 문화 조사 활동이다. 이 활동은 다문화 제재 속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는 작품 속에 나타난 문화를 조사하고, 후자의 경우는 작품에 등장한 국가의 문화를 학습자가 직접 조사한다. 「명랑한 밤길」에 등장하는 국가는 네팔과 방글라데시이다. 하지만 네팔과 방글라데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작품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작품의 내용 중간에 ‘싸부딘’은 ‘간쭈’에게 네팔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거냐는 질문한다. ‘간쭈’는 ‘싸부딘’의 질문에 “우리나라 네팔 달 볼 거야.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¹⁶⁸⁾라고 대답한다. 독자는 네팔의 ‘달’이 신과 같은 존재이거나, 희망과 위로의 의미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달’은 ‘간쭈’에게 고향의 자연물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위로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운동주의 「별 헤는 밤」에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¹⁶⁹⁾라는 구절이 있다. 신진(1985)은 「별 헤는 밤」이 아무 걱정 없는 평정한

168) 이승원 외, 앞의 책, 2019. 311쪽.

169) 운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1955년 정음사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디자인』, 퍼넌이 장영재, 미르북컴퍼니, 2017. 44쪽.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가슴 속의 새길 마음의 안정과 평화, 그리움 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⁷⁰⁾ 즉, ‘별’이 화자에게 편안함을 선물하고 과거의 그리운 것들을 떠올리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별’을 보고 과거의 그리움을 떠올리는 것은 화자가 별을 보며 고향을 생각했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간쭈’에게 달은 고향 네팔을 떠올리며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명랑한 밤길」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 조사 활동에서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문화를 학습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및 문제 해결 활동은 앞서 모든 토의 활동을 통해 추출한 가치, 즉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내면화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이 있는 사람에게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창작 및 문제 해결 활동에서는 ‘네팔·방글라데시와 우리나라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활용한 카드 뉴스 만들기’를 사용할 것이다.

카드 뉴스는 모바일 환경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부상하였다. 그래서 SNS에서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방식과 유사하다. 카드 뉴스는 10장 내외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지만 일반 뉴스와 다르게 대화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도 내용을 전달한다.¹⁷¹⁾ 다음은 카드 뉴스의 예시이다.

170) 신진, 「윤동주 시의 상징적 모티프 : 하늘, 바람, 별의 의미」, 『국어국문학』 6,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53쪽.

171) 정소영(b), 「빅데이터 시대에 카드뉴스의 유형과 활용 현황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614쪽.

<표12> 뉴스웨이, ‘거리두기 끝나자 음식점에 늘어난 ‘OO알바’ 카드 뉴스 일부분

뉴스웨이, ‘거리두기 끝나자 음식점에 늘어난 ‘OO알바’¹⁷²⁾

 <p style="text-align: center;">거리두기 끝나자 음식점에 늘어난 ‘OO알바’</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small></p>	<p>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최근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3월 16만 1,000명, 4월 8만 3,000명 등 최근 두 달간 24만 4,000명 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01 07 Newsway</small></p>
<p>아울러 알바몬이 최근 4년간 1~4월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51.1% 증가했는데, 여기서도 초단기, 즉 ‘하루’ 아르바이트 증가가 확인됐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02 07 Newsway</small></p>	<p>알바몬 분석에 따르면, 하루만 일할 사람을 찾는 공고가 근무 기간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것. 전년 동기 대비 67.8%,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75.7% 급증했지요.</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4월 근무 기간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03 07 Newsway</small></p>

모바일 환경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카드 뉴스의 플랫폼은 가상 공간에서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오늘날에 적합한 내용 전달 방식이다. 카드 뉴스는 다원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에게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카드 뉴스를 통해 전달하는 문화 간의 유사점은 타 문화에 관한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공동체 안에서 문화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형

172) 뉴스웨이, 이석희, ‘거리두기 끝나자 음식점에 늘어난 ‘OO알바’,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22051317522834579>), (접속 일자 : 2022. 05. 15).

성하게 해줄 것이다. 문화 간의 차이점은 독자가 알지 못했던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므로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는 카드 뉴스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앞의 활동에서 학습했던 문화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과 가치 내면화’의 두 번째 활동으로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활용한 카드 뉴스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문화 다양성과 가치 내면화’ 학습 활동은 ‘네팔·방글라데시 문화 조사’와 ‘네팔·방글라데시와 우리나라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활용한 카드 뉴스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5) 학습 활동의 실제

(1) 학습 활동 문항

<표13>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의 문항을 구현한 것이다.

<표13> 재구성한 학습 활동

작품 읽기	1. 「명랑한 밤길」 깡쭉와 싸부딘의 고향을 바꿔 읽고, 모둠 토의를 통해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가치 발견 또는 추출하기	(1) 깡쭉와 싸부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고향을 바꿔 읽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가치의 근거 확인하기	(2) (1)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찾아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가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작품에서 발견	(3) (2)에서 정리한 내용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한 가치와 보편적 가치 비 교 및 평가하기	(2)에서 정리한 태도와 가치를 평가해 보자.
가치 적용하여 나타내기	2.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다양성 존중’을 주제로 한 카 드 뉴스를 모듈별로 만들어 보자.
	(1) 네팔 혹은 방글라데시 문화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2) (1)에서 정리한 내용을 활용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 을 전달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고 SNS에 공유해 보자.

재구성한 학습 활동은 분석 대상인 『문학』(좋은책신사고, 이승원 외, 2019) 교과서의 ‘펼쳐 보기’ 활동을 바꾼 것이다. 기존의 활동은 “3. ‘상생과 공존의 문화 발전’을 주제로 모듈별로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자.”¹⁷³⁾라는 큰 활동 아래에 “(1)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그중에서 화제를 하나 골라보자.”¹⁷⁴⁾, “(2) (1)에서 결정한 화제를 ‘상생과 공존의 문화 발전’이라는 주제와 연결 지어, 공익 광고지를 만들어 보자.”¹⁷⁵⁾, “(3) 모듈별로 제작한 공익 광고를 함께 감상해 보고, 주제로 가장 잘 전달한 광고를 선정해 보자.”¹⁷⁶⁾가 있다. 기존의 학습 활동은 ‘상호 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잠재적으로 학습되는 국가의 편견 및 고정 관념을 깨뜨려 줄 수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은 그 범위가 넓어서 학습 활동이 의도한 대로 흘러갈지도 의문이다.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은 기존 활동을 보완하면서 몇 가지의 장점을 더 가진다. 먼저, 학습자가 잠재적으로 학습한 편견을 깨뜨려줄 수 있다. 이

173) 이승원 외, 앞의 책, 2019. 314쪽.

174) 이승원 외, 위의 책, 2019. 314쪽.

175) 이승원 외, 위의 책, 2019. 314쪽.

176) 이승원 외, 위의 책, 2019. 314쪽.

와 관련된 활동은 '1. 「명랑한 밤길」 간쭈와 싸부딘의 고향을 바꿔 읽고, 모둠 토의를 통해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이다. '1'의 하위 활동은 '(1) 간쭈와 싸부딘에게 느끼는 감정이 고향을 바꿔 읽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와 '(2) (1)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찾아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가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이다. 재구성한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는 '간쭈'와 '싸부딘'에게 느꼈던 연민의 감정이 그들이 속한 국가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국가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는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3) (2)에서 정리한 내용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2)에서 정리한 태도와 가치를 평가해 보자.' 활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하고, '(2)'에서 도출한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은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구성한 학습 활동은 문화 다양성 존중의 기본적인 자세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문화에 속한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재구성한 학습 활동으로 타자 이해와 상호 존중의 태도도 함께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은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2.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다양성 존중'을 주제로 한 카드 뉴스를 모둠별로 만들어 보자.' 활동은 네팔·방글라데시의 문화를 조사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카드 뉴스를 만드는 활동이다. 문화 조사는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한 내용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는 작업을 거친다.

알지 못했던 문화와 자국의 문화 간의 유사점을 찾아 비교하는 활동은 타 문화를 ‘다름’에서 ‘공존’하는 문화로 바라보고 문화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완성한 카드 뉴스를 SNS에 공유하는 활동은 다원적 공동체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은 구체적인 활동 안내로 원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가 수월하다. 가치 탐구 학습은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으로 학습의 단계가 구체적이다. 가치 탐구 학습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은 가치 탐구 학습의 단계를 따라 활동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활동이 순차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3>의 활동은 문화 다양성 존중의 기본적인 자세와 타자 이해 및 존중의 자세를 함양하도록 도와주고,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확장과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다.

(2) 카드 뉴스 활동물 예시

카드 뉴스 만들기 활동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전달하는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이다. 카드 뉴스 만들기는 ‘(1) 네팔 혹은 방글라데시 문화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활동에서 등장한다. 학습 활동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선정된 제재인 「명랑한 밤길」에 등장하는 국가는 네팔과 방글라데시이다. 만약, 학습 활동 방안을 다른 제재에 활용한다면, 조사해야 하는 나라의 문화는 바뀔 것이다. 「명랑한 밤길」을 제

재로 선정된 본 연구에서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중 네팔을 선택하여 카드 뉴스 활동물의 예를 들고자 한다.

네팔의 국가 정식 명칭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네팔은 티베트, 중국 그리고 인도와 닿아 있고 여덟 개의 봉우리가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¹⁷⁷⁾ 여덟 개의 봉우리 중 유명한 것은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이다. 네팔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먼저, 네팔의 식문화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네팔의 주식은 쌀이다. 네팔인들은 쌀을 ‘빳’이라고 부르며, 국과 비슷한 음식을 ‘달’이라고 부른다. 한국인들이 “국밥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네팔인들은 “달빳 주세요”라고 주문한다.¹⁷⁸⁾ 언어에서도 네팔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국어의 문장 구조가 ‘주어-목적어-서술어’구조인 것처럼 네팔어의 문장 구조도 ‘주어-목적어-서술어’이다. 또한, 네팔어는 한국어와 억양이 비슷하다.¹⁷⁹⁾ 어순과 억양이 비슷하다는 것은 말의 뉘앙스를 통해 의도를 전달하는 문화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네팔과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도 존재한다. 네팔은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의 문화가 두드러진다. 네팔은 120개의 민족이 있는 다문화 국가이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한다. 네팔의 다민족·다문화의 성격은 종교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였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특정 종교의 신전에서 다른 종교의 신을 모시는 경우가 빈번하다.¹⁸⁰⁾ 다수의 문화와 종교가 한 나라에 있을 때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네팔은 오히려 문화와 종교의 혼합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네팔은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의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77) 지구에서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 중 8개가 네팔에 있다. 8개의 봉우리는 ‘에베레스트’, ‘칸첸중가’, ‘로체’, ‘마칼루’, ‘초오유’, ‘다올라기리’, ‘마나슬루’, ‘안나푸르나’이다.

178)EKW이코리아월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네팔 을 이해하자”,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8>), (접속 일자 : 2022. 05. 17).

179)다수 의견, 네팔 문화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I2AfXo5lk4&t=2s>), , (접속 일자 : 2022. 05. 17).

180) 네팔 10분 완벽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DPe7trhC6e0>), (접속 일자 : 2022.05.17.).

우리나라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네팔의 문화는 ‘다사인 축제’와 ‘티카 문화’이다. 다사인 축제는 네팔에서 1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축제로 힌두교 여신 ‘두르가’를 숭배하는 종교적 성격이 강한 축제이다. 다사인 축제는 힌두교의 여신 ‘두르가’가 악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그래서 나쁜 기운을 쫓는 의미를 가진다.¹⁸¹⁾ ‘티카 문화’는 경사스러운 날 생쌀과 천연염료를 요거트에 섞어 이마에 바르는 것이다. 네팔인들은 생쌀과 천연염료를 섞은 요거트를 이마에 붙이면, 신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손님을 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네팔인들은 행운과 건강을 빌어주는 의미로 손님에게 티카를 해준다.¹⁸²⁾

다사인 축제와 티카 문화는 우리나라의 ‘팥’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붉은 색의 팥은 음귀를 쫓아내는데 효과가 있다고 민속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전부터 액운을 막아주고, 악귀를 쫓기 위한 의미로 낮이 짧고 밤이 긴 동짓날에 팥죽을 해 먹고, 집안 곳곳에 팥죽을 놓았다. 경사스러운 날에도 비슷한 의미로 팥떡을 해 먹기도 한다.¹⁸³⁾ 이로 축제와 티카 행위를 하는 네팔과 팥으로 음식을 해 먹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비슷한 것을 기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에는 차이가 있다.

식문화와 언어문화에서는 네팔과 우리나라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점은 악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에 하는 행위가 다르다는 것과 네팔에는 다민족 다문화의 성격으로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표14>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전달하는 카드 뉴스의 예이다.

181) 문화뉴스, “네팔 여행 힌두교 정통 축제 ‘다사인 축제’ 즐겨요”,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05>), (접속 일자 : 2022. 05. 17).

182) 다수 의견, 앞의 자료, ,(검색일 : 2022.05.17.).

183) 에듀인뉴스, “동짓날, 우리는 왜 팥죽을 먹는가?”, (<http://www.edu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7>), (접속 일자 : 2022.05.17.).

<표14> 카드 뉴스 활동물 예시

(카드 뉴스 디자인은 미리 캔버스 무료 디자인을 활용하였음.)

알고 있나요?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선

네팔편

OO고등학교 2학년 0반 2조 카드뉴스

1

네팔, 어떤 나라니?




남아시아의 나라 네팔.
티베트와 중국, 그리고 인도와 이웃해 있습니다.
네팔에는 지구에 있는 8000M가 넘는 봉우리 14개 중 8개가 있습니다.
그 중 유명한 봉우리는 에베레스트와 안나푸르나가 있지요.

네팔을 잘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다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네팔의 문화를 알아보며,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www.nepal.com>

2

낮선 네팔,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네팔은 우리나라와 같이 **쌀**이 주식이에요.
네팔은 쌀을 **'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국**과 비슷한 **'달'**도 함께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국밥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네팔에서는 "달걀 주세요" 라고 주문한답니다.

[사단 : \(가정부 대외협력\) 장벽의 음식문화, 최고의 음식이 된다
\(http://san.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3290320\)](http://san.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3290320)

3

낮선 네팔,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주식도 비슷한 네팔과 우리
또 비슷한 점은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국인 **네팔인**

네팔어와 한국어는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
두 나라 모두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네팔과 우리나라의 **문장 억양**이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밥 먹었니-?' 하고 말 끝을 올리듯, 네팔에서도 밥의 끝을 올립니다.

4

나라와 유사한 네팔의 식문화, 언어와 관련된 문화를 먼저 소개한다. 5장에서는 같은 의도를 가지지만 방법이 다른 네팔과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을 다룬다. 카드 뉴스에는 우리나라의 팔과 네팔의 티카 문화, 다사인 축제를 설명하였다. 6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네팔의 문화를 소개한다. 카드 뉴스에서는 네팔이 다민족 국가로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의 문화가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낯설지만,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타 문화를 존중하는 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활용하여 카드 뉴스를 만드는 활동은 문화 간의 동질감을 느끼고, 다른 문화에서 발견하는 가치를 통해 타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각의 중요성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카드 뉴스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와 관련된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 론

공동체의 범위는 온라인 공간의 발달과 교통 수단의 발달로 넓어졌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발달은 공동체 형성 범위를 넓히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활성화된 SNS 애플리케이션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 및 수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화상 채팅 프로그램이 온라인 공간의 예가 될 수 있다.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은 다양한 가치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활성화시켰다. 공동체 형성의 기준은 다양해졌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적 관점, 즉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육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은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화 다양성 존중 측면의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 다문화 제재는 여전히 국가를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규정하고, 특정 국가 출신의 인물에게 안타까운 상황을 부여하여 국가 편견 및 고정 관념을 형성한다. 잠재적으로 형성된 편견 및 고정 관념은 진정한 타자 이해와 문화 다양성 존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제안하였다.

본론의 시작인 II장에서는 오늘날 공동체의 의미와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인 공동체 역량과 문화 다양성 존중 간의 관련성을 2015 교육과정 총론의 공동체 역량과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공동체 역량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과,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의 공동체 역량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하위요소로 추출하였다. III장에서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성취기준을 선정 한 후,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단원의 다문화 제재와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교육 내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찾았다. 다문화 제재와 학습 활동을 분석한 내용에서 발견한 한계점과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다문화 제재가 국가에 대한 편견을 형성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 활동이 잠재적으로 형성된 편견을 깨뜨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 방안을 소개하였다. 학습 활동의 단계는 가치 탐구 학습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 다양성 존중 학습 활동의 1단계와 5단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1단계는 기존의 편견을 깨뜨리고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국가 바꿔 읽기 활동’이고, 5단계는 발견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학습과 가치 내면화 활동’이다.

본 연구는 학습 활동이 실제 수업에서 의도한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편견과 고정 관념을 제거하는 활동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의 기초적인 태도만 마련하고 심도 있는 학습 활동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난 연구들이 다문화 관련 제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교과서 밖의 새로운 제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교과서 제재를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구안했다는 점과 성취기준과 다원화된 공동체를 고려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 활동을 구성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학술 논문

- 강보선, 신호철, 「국어과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문법 평가 설계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평가를 위한 문법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2), 한국문법교육학회, 123-140쪽.
- 강보선,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함양을 위한 문법교육의 내용 탐색 -‘언어 다양성 존중’을 중심으로-」, 『우리말 글』 84, 우리말글학회, 2020. 33-59쪽.
- 김명석, 「다매체 시대의 다문화 교육 연구 - 2011 개정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6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9-37쪽.
- 김성진, 「문학교육, 세계를 생각하다 :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35-58쪽.
- 김옥진, 「공동체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과 수업구성방안 모색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2019(14),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9. 72-85쪽.
- 김용기, 「문학 교과서 속 고소설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제언」, 『동아시아 고대학』 0(62),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127-147쪽.
- 김윤주,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문식성 교육 - 상호문화교육 모형에 기반하여-」, 『漢城語文學』 3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5. 295-318쪽.
- 김지혜, 서명희, 「다문화적 성찰을 위한 문학과 도덕의 융합교육 - 전성태

- 의 <이미테이션>에 대한 토론 수업의 계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125-166쪽.
- 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9. 348-359쪽.
- 김철민, 「가치관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개념 정의, 가치요소와 측정 방법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소』 6,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9. 53-54쪽.
- 김혜련,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영역 검토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6, 돈암어문학회, 2019. 349-383쪽.
- 백순철,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고전시가 교육 - 김충선의 <모하당술회述懷>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9. 81-104쪽.
- 서영애, 「다문화 시를 통한 문학수업 방안 : 하중오 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0)14,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1. 95-113쪽.
- 신진, 「윤동주 시의 상징적 모티프 : 하늘, 바람, 별의 의의」, 『국어국문학』 6,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41-59쪽.
- 안혜숙, 「다문화시대를 위한 문화교육 교수학습 방법 탐구-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고전 소설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 『語文學報』 36,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2016. 129-156쪽.
- 양민정, 「다문화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 연구」, 『외국문학연구』 5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247-271쪽.
- 오정훈, 「서사구조 겹쳐 읽기를 통한 다문화 문학교육」, 『배달말』 58, 배달말학회, 2016. 211-246쪽.
- 윤영, 성지훈,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공동체 역량 예측변인의 탐색 : 랜

- 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8(4), 한국청소년학회, 2021. 383-410쪽.
- 이상일, 「고전소설의 갈등 해결 방식과 국어교육적 의의」, 『국어교육연구』 75, 국어교육학회, 2021. 317-346쪽.
- 이숙정, 양정애, 「뉴스 리터러시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1(6), 한국방송학회, 2017. 152-183쪽.
- 이정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공동체 역량 의미와 하위요소 탐색」, 『시민교육연구』 49(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7. 149-170쪽.
- 장현정, 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759-788쪽.
- 정소영(a), 「2015년 개정 문학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고전소설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62, 국어교육학회, 2016. 419-446쪽.
- 정소영(b), 「빅데이터 시대에 카드뉴스의 유형과 활용 현황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609-620쪽.
- 정현정, 「‘아기장수’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에서의 제안」, 『동악어문학』 76, 동악어문학회, 2018. 189-214쪽.
- 최수현,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문학교육의 한 방안」, 『語文論集』 71, 중앙어문학회, 2017. 119-142쪽.
- 최윤리, 「실천 중심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 탐색 : 공감역량과 공동체역량을 중심으로」, 『뇌교육연구』 2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연구소, 2020. 쪽7-36.
- 최은숙,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語文學』 0(128), 한국어문학회, 2015. 189-213쪽.
- 한명숙, 「국어교육학 : 다문화시대의 범교과적 문화교육 탐구 - 문학경험을

- 통한 문화능력의 함양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149-176쪽.
- 한양화, 「연극 공동창작 활동이 중학생의 공동체 역량 함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협력종합예술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8(4), 한국예술교육학회, 2020. 325-351쪽.
- 홍순애, 「다문화사회의 문학적 상상력과 교육방안 연구 : 다문화소설을 중심으로」, 『한중미래연구』 6,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6. 3-44쪽.

2. 단행본

- 고창균 외, 『해법 문학 현대 시』, 천재교육, 2019.
- 공선옥, 『명랑한 밤길』, 창비, 2009,
-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2017.
- 류수열 외(b), 『문학교육개론 II - 실제편』, 역락, 2018.
- 박호성, 『공동체론』, 효형출판, 2009.
-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1955년 정음사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디자인』, 펴낸이 자영재, 미르북컴퍼니, 2017.
- 장한업(a), 『이제는 상호문화 교육이다』, 교육과학사, 2014.
- 장한업(b), 『한국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상호문화교육』, 박영사, 2020.
- 채백 외, 『한국의 공동체와 미디어』, 컬처룩, 2021.
- 최미숙 외,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담은 국어 교육의 이해 - 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추성경·손은주,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과학사, 2019.

3. 번역서

마르틴 압달라-프릿세이, 『유럽의 상호문화교육-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장한업 역, 한울 아카데미, 2017.

알프레드 홀츠브레허, 『상호문화 교육의 이해 -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정기섭 외 역, 북코리아, 2014.

질 베르분트,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사회』, 장한업 역, 교육과학사, 2012.

4.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육부,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2015.

교육부(a),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2015.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2015.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2015.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2015.

교육부(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

교육부(c),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2017.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2019.

류수열 외(a), 『문학』, 금성, 2019.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9.

안혜리 외, 『미술』, 지학사, 2020.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2018.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2020.
장기범 외, 『음악』, 미래엔, 2020.
정재찬 외, 『문학』, 지학사, 2021.
정창우 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20.
정탁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8.
정호웅 외, 『문학』, 천재교육, 2019.
조우호 외, 『미술』, 미래엔, 2018.
조정래 외, 『문학』, 해냄에듀, 2019.
최원식 외, 『문학』, 창비, 2020.
황병숙 외, 『음악』, 지학사, 2020.

5. 인터넷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 현황”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27_N001&conn_path=I2), (접속 일자 : 2022. 04. 25).

국가통계포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녀의 현재 한국에서의 재학 여부”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001301412&vw_cd=MT_ZTITLE&list_id=154_11779_40_4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

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접속 일자 : 2022. 05. 26)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동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접속 일자 : 2022. 05. 03).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치” 자료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접속 일자 : 2022. 04. 20).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치” 자료2,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접속 일자 : 2022. 04. 20).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치” 자료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접속 일자 : 2022. 04. 20).

네팔 10분 완벽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DPe7trhC6e0>),
(접속 일자 : 2022. 05. 17).

뉴스웨이, 이석희, ‘거리두기 끝나자 음식점에 늘어난 ‘OO알바‘,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22051317522834579>), (접속
일자 : 2022. 05. 15).

다수 의견, 네팔 문화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I2AfXo5lk4&t=2s>), (접속 일자: 2022.
05. 17).

문화뉴스, “네팔 여행 힌두교 정통 축제 ‘다사인 축제’ 즐겨요”,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05>), (접속 일자 :
2022. 05. 17).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index.jsp>), (접속 일자 : 2022. 06. 11)

에듀인뉴스, “동짓날, 우리는 왜 팔죽을 먹는가?”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7>), (접속 일자 : 2022. 05. 17).

중앙선데이, “까무잡잡하다며 ‘똥남아인’ 갈뵤” 일손 돕는 이주민 ‘내로남불’ 비하 심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2654#home>),

(접속 일자 : 2022. 06. 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npClsNo=1>), (접속 일자 : 2022. 04.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공동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3%B5%EB%8F%99%EC%B2%B4&ridx=0&tot=1162>), (접속 일자 : 2022. 05. 03).

EKW이코리아월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네팔을 이해하자”,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8>), (접속 일자 : 2022. 05. 17).

6. 카드 뉴스에 사용된 사진의 출처

네팔 지도 사진, 네이버 외교통상부 KOTRA NAXOS 제공 지도 캡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t.top&where=nexearch&qquery=%EB%84%A4%ED%8C%94&oquery=%EC%84%9C%EC%A0%81&tqi=hoTHFwp0J1ssstVSuZ0sssssys-045430), (접속 일자 : 2022. 05. 19).

네팔 국기 사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93215&cid=43747&categoryId=50820>) , (접속 일자 : 2022. 05. 19).

달빳 사진, [거칠부 다이어리] 최악의 음식 달빳, 최고의 음식이 되다,
(<http://san.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32901321>) , (접속 일자 : 2022. 05. 19).

다사인 축제 사진,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75872&cid=42836&categoryId=42836>) , (접속 일자 : 2022. 05. 19).

티카 문화 사진, [다정다감] 다수의견 - 네팔 문화 알아보기 (200627)21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I2AfXo5lk4&t=142s>), (접속 일자 : 2022. 05. 19).

ABSTRACT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Sanctions Learning Activities for Development of Community Competence - Based on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

Mun, Chaeyoo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Communities exist on a variety of criteria. Examples include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countries. Communities are also formed in virtual spaces. The world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which is used by many people today, represents a virtual space. Communities continue to form arise from a variety of criteria and extended ranges. And various cultures coexist in the community. Therefore, community members are required to have an attitude of respect for differences and diversity.

However, literature education contains a very scarce amount of content of education that respects community and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literatures still depict a state-centered community, and give unfortunate situations to characters drawn around the state. This aspect forms prejudice and stereotypes about a particular country. Prejudice and stereotypes provide the potential to look at its culture in a biased wa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learning activities that can improve biased views on other cultures and foster an attitude of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of the community and examine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mpetency and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was examined through the general theory of the 2015 curriculum and the 2015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he elements of community competency were extracted. Next,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2015 Korean language curriculum elective subject 'Literature' was analyzed in terms of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the limitations and complementary points of the educational content were explored. Finally, learning activities using value inquiry learning were proposed as learning activities that can foster an attitude of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Learning activities to respect cultural diversity are five stages. The purpose of the activity is to improve prejudice and stereotypes about a particular country and to cultivate a basic attitude of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first and fifth stages of the activity. The activities proposed in step 1 are 'Change the country' and the activities proposed in step 5 are 'Cultural diversity learning and value internaliza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changing countries' is to break prejudice and stereotypes about a specific country that has been potentially learned. The purpose of 'cultural diversity learning and value internalization activities' is to internalize the value of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discov

ered through stages 1 to 4 of learning activities. Examples of learning activities to respect cultural diversity were explained through "Cheerful Night Road" in "Literature" (Good Book Shinsago, Sung-won Lee , et al., 2019).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posing cultural diversity-respecting learning activities that can supplement multicultural sanctions and the limitations of related activities. Since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is related to community competency, researchers think this activity will also help foster community competency. In addition,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organized cultural diversity respect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diversified communities.

[Key word] Community competence , Education on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Change country to read, Cultural diversity learning and internalization activities, Multicultural Sanctions Learning Activities

<부록 1> '지학사', '미래엔' 『문학』 교과서 단원, 학습 목표, 문학 작품 정리

대단원	소단원 및 학습 목표	문학 작품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2) 문학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작품 1. 「흰 바람벽이 있어」_백석 작품 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_양귀자
	(3) 문학 활동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활동의 생활화가 자아와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태도를 지닌다. 	한 권 읽기 : 쟁점이 있는 문학 독서 토론
3. 한국 문학의 성격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 온 문학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담겨 있는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질을 파악한다. 	작품1. 「사미인곡」 작품 2. 「태평천하」
	(3) 한국 문학의 양상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하여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작품 1. 「정선 아리랑」

지학사(정재찬 외, 2021) 『문학』 교과서 단원 내용

대단원	소단원 및 학습 목표	문학 작품
1. 문학의 기능과 원리	<p>(1) 문학의 본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문학 활동을 한다. •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p>작품 1. 「배를 매며」</p> <p>작품 2. 「성난 풀잎」</p>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p>(1) 고대 문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한다. 	<p>작품 1. 「주몽 신화」</p> <p>작품 2. 「공무도화가」</p>
	<p>(2) 중세 문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한다. 	<p>작품 1. 「찬기과랑가」</p> <p>작품 2. 「청산별곡」</p> <p>작품 3. 「경설」</p> <p>작품 4. 시조 세편</p> <p>작품 5. 「사미인곡」</p>
	<p>(3)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한다. 	<p>작품 1. 「어이 못 어딘가」</p> <p>작품 2. 「홍보전」</p> <p>작품 3. 「절명시」</p>
	<p>(4) 근현대 문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한다. 	<p>작품 1. 「초혼」</p> <p>작품 2. 「만세전」</p> <p>작품 3. 「백록담」</p> <p>작품 4. 「광장」</p> <p>작품 5. 「원고지」</p> <p>작품 6. 「벼」</p>

		작품 7 「내 여자의 열매」
5. 문학의 가치	(1) 문학과 삶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을 기른다. •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갖춘다. 	작품 1. 「다시 느티나무가」 작품 2. 「김 씨 표류기」
	(2) 문학과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꾼다. • 문학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인다. • 문학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작품 1. 「바퀴벌레는 진화 중」 작품 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미래엔(방민호 외, 2019) 『문학』 교과서 단원 내용